

2017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한국연구재단 사회책임경영보고서

2017 한국연구재단 사회책임경영보고서



대전청사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Tel. 1544-6118 Fax. 042-869-6777

서울청사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25
Tel. 02-3460-5500 Fax. 02-3460-5519





ABOUT THIS REPORT

연구 지원·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첫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사회책임경영보고서는 보고 기준인 GRI Standards의 핵심적 부합 방법 ('In accordance'-Core)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국연구재단의 경영과 사업 전반에 걸친 사회적 책임 이행 성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는 제3자 전문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재단의 활동을 보고함으로써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얻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께서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구재단 일자리전략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Introduction

이사장 인사말	4
2017 하이라이트	6
한국연구재단 소개	8
거버넌스	12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	14
좋은 일자리 창출	16
열린혁신	18
윤리·인권 경영	20
이해관계자 소통 및 중대성 평가	24

26

연구지원으로 만드는 사회적 가치

사회발전을 이끄는 R&D	28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연구자 지원	38
공공가치를 높이는 연구 인프라	48

58

사회적 책임의 실현

임직원 공감 형성	60
재단 재능을 활용한 사회적 기여	68
환경적 책임을 위한 노력	74

78

Appendix

GRI Standards Content Index	80
사회적 가치 검증의견서	82
제3자 검증의견서	84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지지	86

이사장 인사말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사회책임경영보고서로 인사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뿌리로 하는 한국연구재단은 2017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첫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단의 본분인 창의적 연구 지원과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 노력에 대한 성과를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첫째, 한국연구재단은 창의적 연구를 위해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합니다.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연구를 충분히 지원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의 학술연구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구지원과 함께 연구자가 활동하는 대학, 산업, 지역사회에 연구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추고 범국가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자를 육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연구재단은 연구 지원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를 선도하고 인권경영을 실행함과 동시에 다양한 대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사회책임경영보고서에 이러한 노력을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국제 지속가능 보고서 가이드라인(Global Reporting Initiative)을 기반으로 하는 본 보고서의 발간뿐만 아니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가입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노력에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18년 3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조무제

2017 하이라이트

2017년 예산 4.9조원
국가R&D예산의 25.3% 집행



R&D 과제 23,933건 지원
국가 전체의 55.4%



SCI 논문성과 18,093편
국가 전체 SCI 논문의 31.4% 차지



피인용 상위 1% 논문 231편 발표
전체의 51.3% 차지



3대 과학저널
(Nature, Science, PNAS)
논문 발표 71편
국가 전체 실적의 61.7% 차지



2017년 과학인프라 경쟁력
세계 8위



국내 석·박사학위 취득자
22,823명 배출
전체 석·박사학위의 23.9%



4차 산업혁명 대응 시스템 혁신
- 지능형 AI 평가자 자동추천
-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
경제부총리상 수상
-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지원
324명



대학원생 인권보호
온라인 콘텐츠 개발
- 연구자 4만여 명 수강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명예의 전당
- 금요일에 과학터치
- 석학인문강좌



정부권장정책 구매실적평가
3년 평균 99점



연구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



UN Global Compact

한국연구재단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2018년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의 전략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분야의 10대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 경제와 사회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발적 이니셔티브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10대 원칙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재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표명합니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 지구적 흐름에 동참하겠습니다.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The Ten Princip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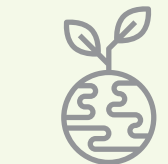
인권 (Human Rights)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 (Labour)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Environment)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Anti-Corru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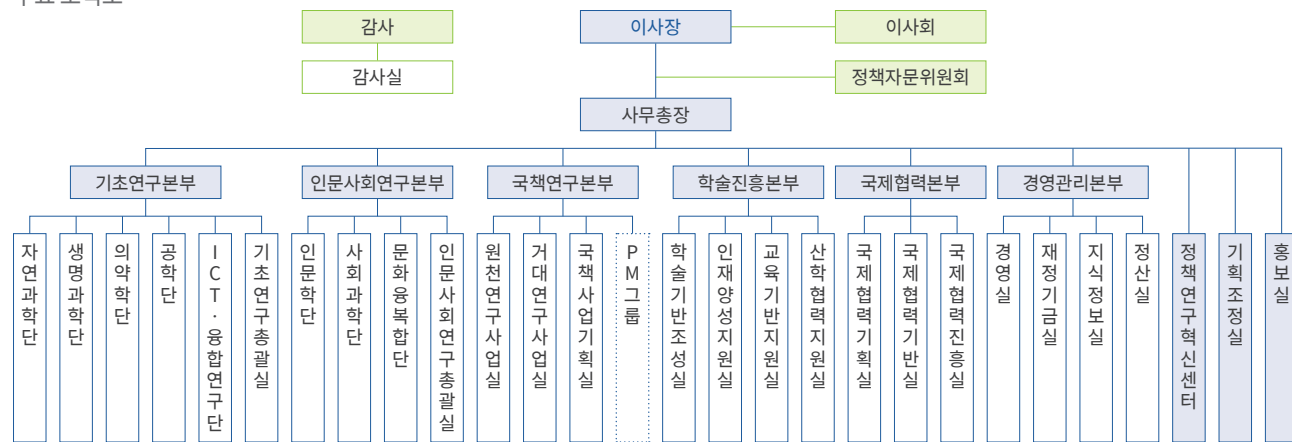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한국연구재단 소개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연구재단법 제9518호에 의거해 2009년 6월에 설립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전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학술 연구개발 활동 및 관련 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국가대표 연구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재단설립일	2009년 6월 26일
이사장	조무제
주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성격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본사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가정동)
임직원수	320명
조직현황	6본부 1센터 8단 19실

주요 조직도



인원현황

(2017년 12월 현원 기준)



연혁

한국연구재단은 1977년에 설립된 한국과학재단, 1981년에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년에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하나로 통합되어 2009년 6월 26일에 새로이 출발하였습니다. 40년의 역사를 이어 받은 연구재단은 세 재단의 통합으로 과학기술과 학술 진흥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2009.03.25. 한국연구재단법 제정(법률 제9518호)
- 2009.03.30. 한국연구재단 설립위원회 구성
- 2009.05.12. 한국연구재단 정관의결
- 2009.06.26. 한국연구재단 출범 및 제1대 이사장 박찬모 취임
- 2009.07.28. 한국연구재단 창립이사회 개최

- 2011.01.20. 제2대 이사장 오세정 취임
- 2012.01.06. 제3대 이사장 이승종 취임
- 2014.01.03. 제4대 이사장 정민근 취임
- 2016.08.23. 제5대 이사장 조무제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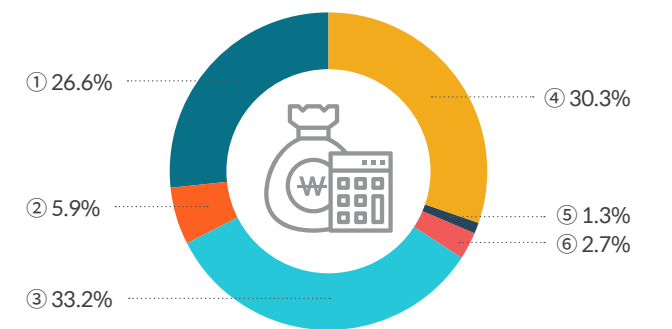
주요기능 및 역할

“ 학술·연구개발 활동 및 관련 인력의 양성·활용 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 ”

- 01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 02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 03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 04 학술 및 연구개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 개발 지원

예산 현황

(2017년)



총 4조 9,186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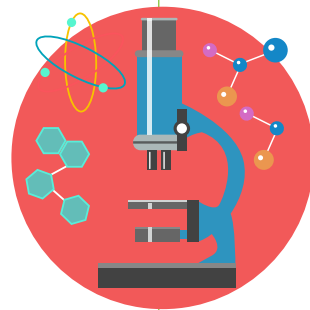
① 기초연구본부	1조 3,081억원
② 인문사회연구본부	2,899억원
③ 국책연구본부	1조 6,327억원
④ 학술진흥본부	1조 4,883억원
⑤ 국제협력본부	631억원
⑥ 기타	1,365억원

주요사업 소개

한국연구재단은 연구개발활동, 학술활동, 인력양성, 연구기반 구축 등의 활동으로 전 학문 분야에 걸쳐 국가적 연구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간 2만 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지원하여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과학의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는 기초 연구사업과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은 매우 넓은 범위의 연구개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물, 화학과 같은 기초과학부터 의료 기술, 환경기술과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까지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원자력 기술, 우주기술처럼 국가적 단위의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국내 유일한 지원사업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술연구와 기초연구를 지원합니다. 국민들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대중과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력양성사업

연구재단은 전문적인 교육과 인프라로 연구자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연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미래 연구인력 양성,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등 특성화된 사업으로 연구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산학협력사업

대학과 기업이 상생하도록 협력 사업을 운영합니다. 대학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 육성으로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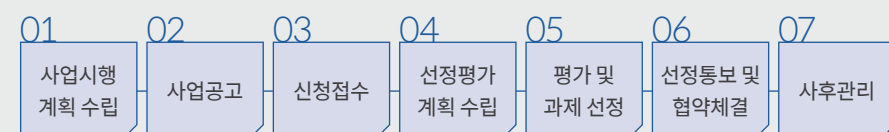
○ 연구기반 구축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자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연구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국제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안전한 연구실 구축 등 다양한 지원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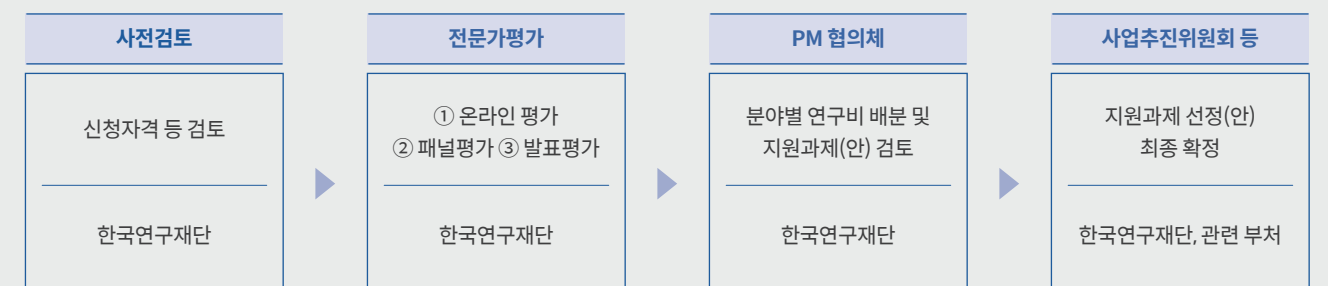
연구지원사업 추진체계

한국연구재단의 주요 역할인 연구지원 사업은 7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우선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중점 추진사항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연구재단 및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 사업공고를 게재하면 연구자들이 과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평가방법, 예산분배 등 세부적인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검토, 전문가 평가, 종합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받아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연구의 진도를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성과를 관리하는 사후관리도 뒤따릅니다.



연구지원 평가 절차

연구평가는 여러 단계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사전검토 단계에서 신청자의 이력 및 자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전문가평가는 3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한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PM(Program Manager)제도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가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연구지원사업을 관리합니다. 사업추진 위원회에서 지원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거버넌스

이사회 전반적
만족도 93.3점



한국연구재단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장, 감사,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재단의 경영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영혁신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한국연구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6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선임직 비상임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하게 됩니다.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통상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기획재정부의 차관이 말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심의, 성과 모니터링 등 한국연구재단의 주요사항을 관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원 현황

이름	성별	소속 및 직위	구분
조무제	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사장
서진호	남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교수	비상임 이사 (선임직)
이미나	여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김영옥	여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박희봉	남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윤혜은	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장	
지원림	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수	남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배병수	남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교수	
이영숙	여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정철희	남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원장	
허동현	남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진규	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비상임 이사 (당연직)
박춘란	여	교육부 차관	
김용진	남	기획재정부 제2차관	
심 순	남	한국연구재단 감사	감사

한국연구재단 이사회



이사회 운영 실적

이사회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의결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정의결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안내 절차를 강화하여 참석률을 높이고 있으며, 비상임이사에게 재단 정보를 상시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안전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 경영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실적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사회 개최횟수	5회	8회	4회
비상임 이사회 개최횟수	2회	5회	4회
의결안건	22건	21건	21건
수정의결 비율	13.6%	9.5%	33.3%
보고안건	13건	12건	12건
사전심의율	100%	100%	100%

전문위원회 개최

다수의 비상임 이사로 이루어진 연구재단 이사회의 특성을 활용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기관경영과 사업관리 양면에서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이 발휘되고 있으며, 두 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운영계획과 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전사적 대응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 현황

구분	인원	주요 역할	상세 자문 분야	구성원
경영 전문위원회 (기관 경영 분야)	5명	재단 내규 및 기관 경영 효율화 자문 등	재단 내규 및 기관 경영 평가 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서진호, 김성수, 지원림 정철희, 박희봉
사업 전문위원회 (사업 관리 분야)	6명	재단 주요 사업 관련 이슈 검토 및 자문 등	인문사회분야 과학기술분야	이미나, 김영옥, 허동현 윤혜은, 배병수, 이영숙

사회적 가치 지표
검증 결과 90.6점



경영혁신위원회 운영

한국연구재단은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경영혁신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경영혁신위원회는 경영투명성, 인권, 안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사업을 지정하고, 사회적가치 지표(Social Value Index)를 통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컨설팅 기관 THE CSR의 검증 결과, 2016년 82.6점으로 '우수'등급을 획득한 반면에 2017년에는 90.6점으로 '탁월'등급을 달성함으로써 재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연초	연중	연중/연말
기관 핵심 아젠다 발굴	경영혁신 위원회 개최(매월)	이달의/올해의 우수성과 선정·포상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익을 실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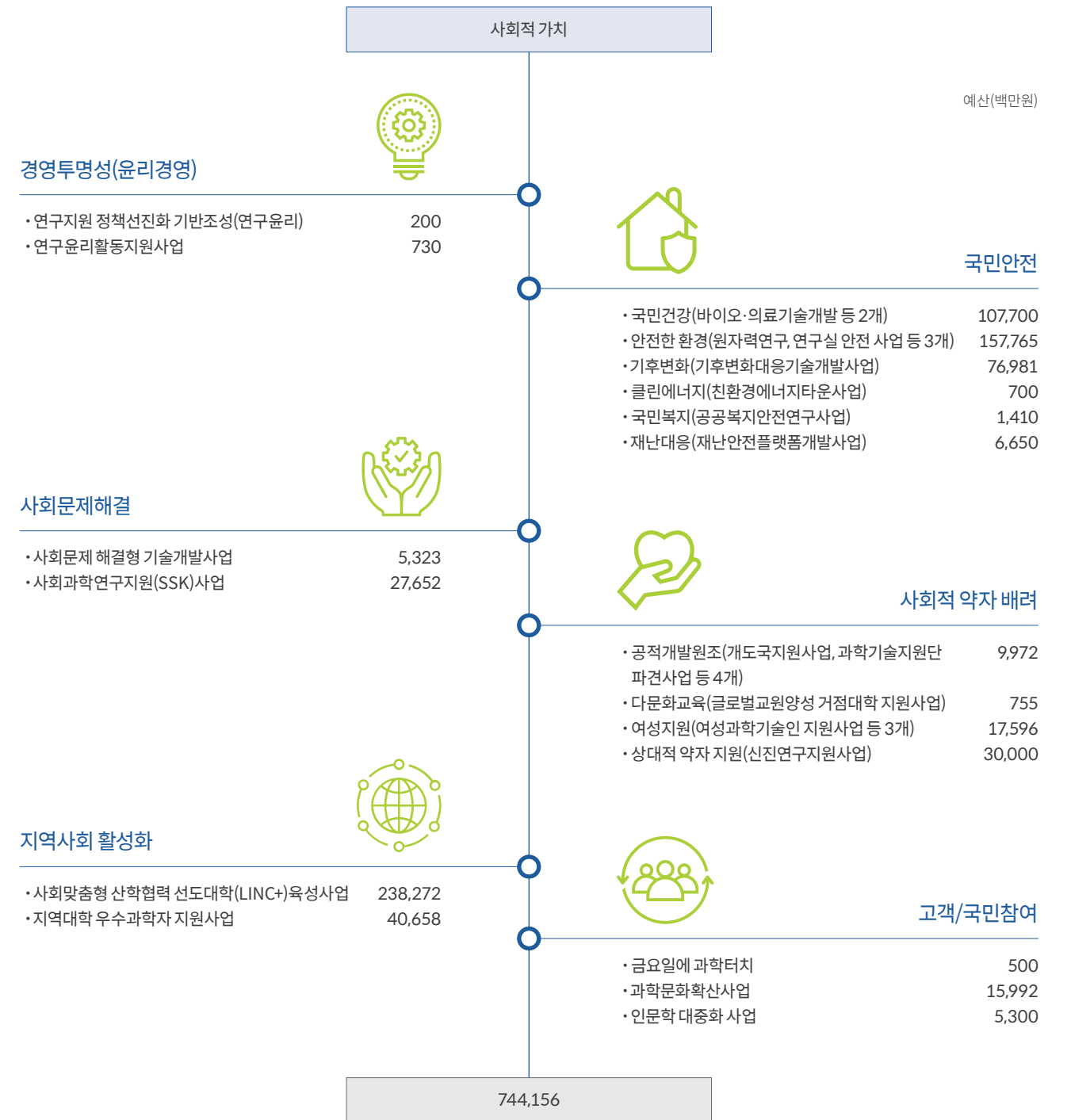
중장기 경영전략

한국연구재단은 창의적 연구와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이라는 미션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연구의 질적 도약, 우수한 인재 양성, R&D 투자 효율성 극대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전략과제를 포함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창의적 연구와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미션	창의적 연구지원 기관 고유 목적인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전 학문분야 진흥에 이바지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기관 고유 목적인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미래 국가 학술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	
비전	국가 R&D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지원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의 대표적 연구지원·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재단 설립 목적 및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위상 정립 및 발전상 제시			
핵심가치	창의와 도전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혁신을 통한 연구자 감동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정한 지원	
전략목표 (2018-2022년)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상위 10% 논문 20% 달성)	우수연구 인적자원 확대 (국내 석박사 30% 배출)	연구 투자효율성 극대화 (과학 경쟁력 세계 5위)	혁신 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창출 50,000명)
전략과제	01 연구자 맞춤형 지원체계 고도화	05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기반 마련	09 개방·소통의 연구기획 인프라 확충	13 R&D 일자리 플랫폼 구축
	02 국가 성장동력 현안해결 연구지원	06 인재 확보를 위한 포용적 연구지원	10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14 사회적 책무실천 통한 고객공감
	03 인문학·사회과학 진흥 및 연구지원 확대	07 연구자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11 연구성과 활용의 선순환 구조 확립	15 청렴하고 즐거운 조직문화 확산
	04 수학분야 융합연구 생태계 조성	08 지능기반 산학연 협력 활성화	12 지능형 R&D 평가·정산 시스템 구축	16 지속가능한 조직역량 확보

사회적 가치 관련 사업

한국연구재단의 사회적 가치는 '국가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 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로 정의하고, 환경적 책임, 윤리적 책임, 준법경영 책임, 제도적 책임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책임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27개 사업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한국연구재단은 핵심사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맞춤형 지원을 설계하였습니다. 대학생, 박사후연구원 및 비전임교수, 여성 및 퇴직과학기술인으로 적용 대상을 세분화하여 각각 산학협력, 인력양성, 역량강화의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체계

한국연구재단은 중장기 경영전략목표와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전략 목표 중에 하나인 ‘혁신 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창출 50,000명)’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9개의 일자리 창출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전략비전	좋은 일자리(New Job)로 연구자(Researcher)와 함께 더 나은 미래(Future)로		
전략목표	R&D 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민간 부문 일자리 50,000명 창출		
전략방향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일자리 더하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생태계 조성)
전략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협력 기반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 기반 일자리 창출 여성·퇴직 연구자의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형평적 일자리 여건 조성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 구축 고용친화적 인프라 강화 평가지표 발굴 및 제도 개선

6,993개 R&D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R&D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에 연구인력, IT 직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6,993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향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실적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청년취업	73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산학협력 중점교수, 청년취업	717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산학협력 중점교수	137명	인문한국(HK)지원사업 부설연구소 교수, 연구인력	417명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전담연구교수, 전담인력	341명	BK21 플러스사업 박사후연구원, 전담인력	1,939명
학문후속세대지원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 국내연수자	270명	학문후속세대지원 (학술연구교수) 학술 연구 교수	228명
학문후속세대지원 (시간강사) 시간강사	1,282명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박사후 연구원, 리서치펠로우	1,146명
WFK 과학기술지원단(TPC) 파견사업 파견연구자	22명	경력단절여성과학기술자복지지원사업 여성과학기술인	324명
학술지평가 및 학술활동지원사업 IT 도급업체 직원	60명	연구정보화사업 IT 도급업체 직원	37명

일자리 창출 혁신과 확산

일자리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재단 내·외부에서 일자리 창출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내부 문화 조성으로는 한국연구재단의 전 직원이 참여하여 일자리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성과를 선정하여 우수사례가 확산되도록 하였습니다. 외부적 문화 조성의 노력으로는 UN 글로벌컴팩트 가입, 사회적 가치 진단, 일자리 콘테스트 대상 수상이 있었으며, 재단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장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창업을 지원하여 창업 열기를 확산하였습니다. 학생창업 문화행사의 개최와 언론보도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콘테스트 대상

한국연구재단은 2017년 12월 14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공동 개최한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에서 대상인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한 이번 대회는 총 62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일자리 우수사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생애 주기별 육성·일자리 연계 지원’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모성보호, 경력단절 해소, 사회진출 확대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한 수상이며, 여성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도 한국연구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일자리 창출 성과

사업내용	여성공학인재 양성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지원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재취업 지원
사업예산	4,492백만원	2,170백만원	14,684백만원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커리어내비게이터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활동 175건 지원 미취업 교육생 취업률 6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복귀지원 324명 수요자 만족도 90점



열린혁신

한국연구재단은 국가의 열린혁신 비전 및 전략과 재단의 고유 역할을 고려하여 ‘열린 NRF, 국민 행복을위한 국가 R&D 혁신’이라는 열린혁신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연구재단은 국민에게 열려있는 연구지원을 통한 국가 R&D 혁신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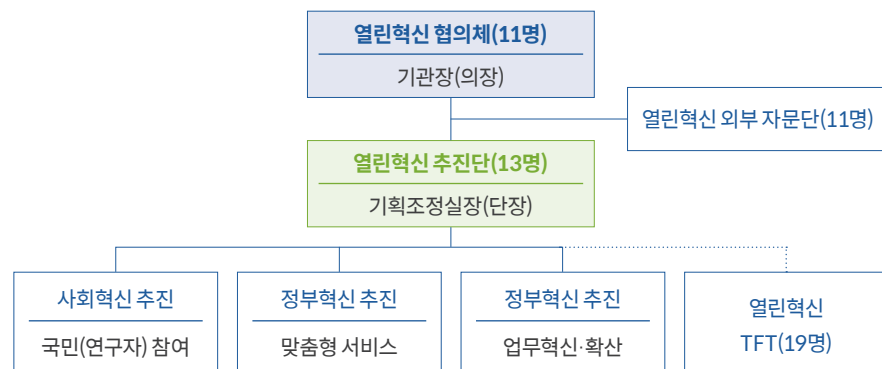
열린혁신 추진 전략

열린혁신의 핵심은 개방성과 국민행복입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재단 정보의 공개로 개방성을 강화하고, 재단의 고유 목적인 학술과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려는 열린혁신입니다. 4개의 전략 아래 5개의 대표과제가 열린혁신 비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민주도 문제해결 ① 국민소통 사회문제 해결 연구지원 ② 민·학·연 협력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국민 공감 서비스 ③ 연구자 맞춤형 스마트 시스템 구축	일하는 방식 혁신 ④ 연구자가 만드는 연구행정 혁신	데이터 공유·확산 ⑤ 연구지원 성과정보 대국민 무료 개방
--	--	--	---

열린혁신 지원 조직

열린혁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열린혁신 실무추진단과 열린혁신 TFT는 내부직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열린혁신 협의체는 외부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내·외부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연구재단의 혁신을 주도합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열린혁신 기반 조성

여성 공학드라마 콘텐츠 공모전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다양한 지원활동으로 열린혁신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각종 공모전과 우수사례 포상을 통해 참신하고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열린혁신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구재단의 열린혁신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국민들과 내부 직원이 참여한 열린혁신 과제 공모전이 있었으며, 내부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동으로는 평창올림픽 지원 아이디어 공모, 청렴우수사례 발굴, 일하는 방식 혁신 아이디어 공모 등이 있었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동으로는 대학(원)생 미래 원자력 아이디어 공모전, 여성 공학드라마 콘텐츠 공모전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학(원)생 원자력 아이디어 공모전, 일하는 방식 혁신 아이디어 시상식



열린혁신 협의체 간담회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린혁신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들이 한국연구재단의 사회책임경영에 참여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조무제 이사장을 포함한 내부인사들과 세종교육원 박종선 원장을 비롯한 외부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 정립, 실현계획 및 평가기준 수립, 경영혁신 위원회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시스템의 도입 등 한국연구재단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일시: 2017년 12월 20일 장소: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주최: 한국연구재단 주관: THE CSR



- ① 더씨에스알 정세우 대표
- ② 한국연구재단 _안화용 기획조정실장
- ③ 한국임업진흥원 _강승모 전략기획실장
- ④ 성신여자대학교 _김경신 교수
- ⑤ 한국연구재단 _조무제 이사장
- ⑥ 원광대학교 _송문규 교수
- ⑦ 세종교육원 _박종선 원장
- ⑧ 고려대학교 _고제상 교수
- ⑨ 서울신문 _유용하 차장
- ⑩ 한국연구재단 _최동명 일자리전략팀장

윤리·인권 경영

부패방지시책평가 2등급 

사회적으로 윤리와 투명성이 강조됨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은 반부패 수준과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의 기반이 되는 경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연구윤리를 강조하여 연구현장의 윤리성을 높이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기반 구축

비전 및 추진체계

한국연구재단은 2017년 새로운 윤리경영 중장기 추진전략 체계를 구축하여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Clean NRF 실현’이라는 윤리비전 아래, 부패근절(No), 윤리활동운영(Run), 우수 윤리 경영 체계(Fine)라는 세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단 내에 윤리성이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과제를 실행합니다.

윤리비전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Clean NRF 실현		
중장기 로드맵	윤리경영 정착 (2017-2018)	윤리경영 확산 (2019-2020)	윤리경영 내재화 (2021-2022)
2017 전략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적 윤리경영 활동 강화 연구지원 청렴 프로세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내·외 인권경영 기반 마련 인권침해 예방 콘텐츠 개발 연구윤리 문화조성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렴클러스터 구축·운영 청렴기반 교육 및 규제 개선

내부견제시스템 구축


내부견제시스템


반부패·청렴을 실현하기 위해 내부견제시스템을 구성하고 감사직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 하였습니다. 제도적으로 재단의 청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 인원과 예산을 매년 확충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이 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 활동 범위: 기관운영 및 연구지원「A to Z」부정조사 활동: 종합, 특정, 일상, 상시, 기획 및 복무감사, 연구비의 I&I System(수사+감사)	제도 및 시스템 접근성: 포털사이트에 재단 핫라인 연결 익명성: 부패신고 ‘레드휠’ 운영 연계성: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접수
감사 및 비상임이사 감사: 이사회 참석 및 의견 제시 비상임이사: 경영전문위원회, 비상임이사회 의 준감사인: 감사활동 시 감사인으로 업무수행	외부전문가 감사자문위원회, 청렴옴부즈맨 운영 유관기관과의 교차 및 협력감사 실시 분야별 전문가 협력 감사제도 운영

선진 감사기법 적용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신고센터의 고도화와 연구비 비리유형을 분석하는 선진 감사기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비리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레드휠, 유관기관 및 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비에 관련된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발된 부정비리를 분석하여 유형화 하고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를 대학, 임직원, 연구자와 공유하여 연구비 비리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7 한국감사인대회 내부감사 부문 기관 대상 수상 

2017년 신고건수 20건 (2016년 14건, 2015년 3건) 

재단 청렴 활동

대전연구단지 청렴클러스터 구축

지역거점을 기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청렴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한국연구 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국가 과학분야 연구를 함께 이끌어가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의 이행과 청렴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렴선포식 개최

한국연구재단 임직원의 청렴의지를 높이기 위해 청렴·고객감동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고객현장의 개정을 알리는 낭독회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청렴슬로건 공모전의 시상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청렴교육


한국연구재단은 2017년 고위직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 제도, 연구비 부정집행 등에 대해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히 부패취약분야인 구매·계약, 연구비 정산, R&D사업 평가 관련 업무 종사자 23명과 임원 등 고위직은 더욱 강화된 교육을 수강하며 청렴의지를 다졌습니다.



전 직원 청렴 선포 및 서약 668건 

Ezbaro 시스템 기능개선 34건 

Ezbaro 시스템 전문교육 18회

청렴 옴부즈맨 의견 제안 및 반영 17건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연구비 집행관리 시스템인 이지바로(Ezbaro) 고도화하여 국가 R&D 연구비의 부정수급, 과다 및 중복 집행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관연구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연구 몰입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향후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이 정착되면 국가 전체의 연구비 관리 투명성이 대폭 증가하고 국가재정의 낭비는 최소화할 것입니다.

청렴옴부즈맨

청렴옴부즈맨은 7명의 외부전문가들이 재단이 지원하는 사업과 기관운영 상황을 독립적인 시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점과 시정사항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연구재단의 특성상 전문성과 투명성 모두가 요구되는 만큼 연구현장의 전문가와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 횟수와 의견 제안 수를 늘려 재단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윤리 교육 수강
총 30,468명
(전년대비 48% 증가)



연구윤리

연구윤리 교육

대상별 특화된 교육으로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 제고와 윤리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인문사회계/이공계, 국문/영문으로 나누어 수강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연구윤리의 중요성, 연구자의 권리, 연구데이터 관리 등 10개의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이후에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연구윤리 교육 효과

	교육 전 (5점 만점)	교육 후 (5점 만점)
연구윤리 관심도	2.90점	4.29점
연구윤리 의식	3.24점	4.10점

연구윤리 포털 사이트 운영

연구윤리 포털 사이트(CRE)를 운영하여 연구윤리의식을 확산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000건 이상의 학문분야별 콘텐츠를 제공하고, 상시 컨설팅으로 실제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대한 연구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연구윤리포럼 개최

매년 개최되는 연구윤리포럼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진행됩니다. 2017년 연구윤리포럼은 '미래산업사회와 연구윤리'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전년대비 47% 증가한 353명이 참석하였고 디지털 일자리, 대학의 미래, 미래기술과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6개의 주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연구윤리 포털 사이트
www.cre.or.kr



연구윤리포럼 참석
353명
(전년대비 47% 증가)



윤리경영 평가 및 개선

한국연구재단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수검하며 재단 청렴수준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은 상승하였으나 청렴도 측정결과는 하락하여 이를 회복하고자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렴도 직무청렴계약 확대, 청렴문화운동 등 청렴의식을 높이는 활동과 익명 제보시스템 및 감사실 핫라인 운영,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과 같은 활동으로 신고 체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 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외부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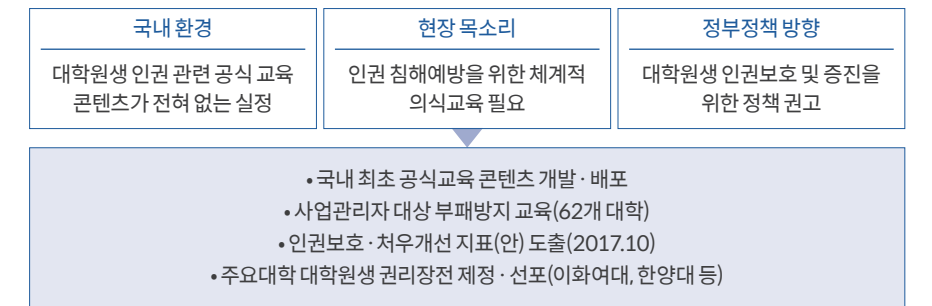
조사 기관 및 평가	평가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종합청렴도	8.10점	7.77점	7.58점
	외부청렴도	8.08점	7.77점	7.44점
	내부청렴도	8.17점	7.99점	8.01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4등급	2등급

인권경영 실행

대학원생 인권침해 예방교육

대학원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예방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대학원생 인권 관련 교육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권 침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의식교육이 필요하다는 대학 현장의 의견과 정책적 방향에 따라 연구재단은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동영상 제작하였습니다. BK21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 및 연구진 4만명이 교육을 수강하였고, 62개 대학에서 부패방지 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학교 내 인권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종종 발생하는 대학원생 인권침해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였습니다.

대학원생 인권교육



인권경영 기반 마련

인권보호를 확립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중장기 인권경영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2015년에 인권경영을 도입하였고 체계화 단계를 거쳐 재단에 깊이 뿌리내리는 문화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임직원과 연구자의 인권을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성희롱, 가정폭력 등 다양한 인권침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인권경영 자가진단, 인권침해 신고제도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체계

	1단계 <도입 및 제도화>	2단계 <체계화>	3단계 <문화화>
시기	2015년	2016-2017년	2018년 이후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O 인권경영 실천의지 •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 인권경영 정책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지침 제정 • 인권침해 신고제도 운영 • 인권경영 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정착 • 사회적 책임 향상 • 자율적 인권경영 확대
핵심전략	인권경영 정책 선언	인권경영 환경조성	실천력 제고 및 환류체계 강화

전직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이해관계자 소통 및 중대성평가

한국연구재단은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특성과 필요를 이해하고 맞춤형 소통채널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노력합니다.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연구재단의 비전과 전략을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자 이해관계자 특성을 고려한 소통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청청청(請聽淸, 요구를 경청하고 개선한다)’이라는 표어 아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이해관계자	참여유형	소통채널
임직원	가치창출	직원과의 간담회, 월간/PM/실장/팀장 회의, 비전 및 전략체계 개선 TF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간담회, 노사 공동 TF,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
연구자	가치공유	잠재/참여연구자 간담회, 연구현장 간담회, 연구상담센터 운영
일반국민		강연회/콘서트/포럼, SNS 및 블로그
지역사회		1사 3촌 자매결연
정부	가치협력	토론회/전략회의/TF, 업무 설명회
국회		업무협약(MOU), 업무 설명회
유관기관		간담회/설명회
전문기관		정책토론회
언론매체	가치평가	기자 간담회, 정부출연 연구기관 홍보협의회

연구자 의사소통

한국연구재단은 핵심 이해관계자인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연구현장에 맞는 지원을 하고자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7회의 권역별/본부별 간담회를 통해 724명의 연구자들이 제안해주신 연구기획, 선정평가, 연구행정 등 연구와 관련된 다방면의 개선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립된 개선방안들은 2018년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프로세스 혁신방안'과 범부처 R&D 제도개선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충청권 간담회



영남권 간담회



수도권 및 강원권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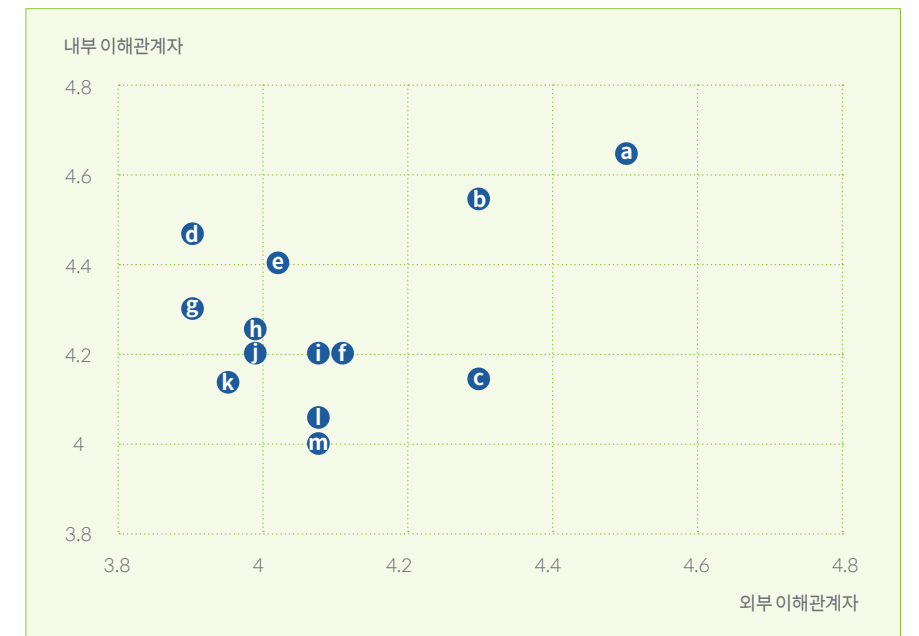


호남권 간담회



중대성 평가

중대성 평가를 시행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중대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량화하였습니다. 임직원, 연구자, 일반국민, 협력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1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답변 덕분에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도와 향후 재단이 나아갈 방향의 파악이 용이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결과는 앞으로의 재단경영에 반영할 예정이며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연계하여 장기적인 전략 수립에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대이슈

- ㉓ 공정한 연구과제 평가 및 선정
- ㉔ 투명하고 공정한 R&D 예산 집행
- ㉕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 ㉖ 임직원의 인권보호
- ㉗ 다양성 존중과 차별 없는 기회보장
- ㉘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 ㉙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㉚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 ㉛ 친환경 미래에너지 연구
- 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 ㉝ 연구자원을 통한 간접적 경제기여
- ㉞ 연구자 만족 제고
- ㉟ 연구자원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지속가능성 핵심 테마	중대이슈	GRI Aspect	UN SDGs 관련성
윤리·인권경영	㉔	반부패	SDG 16
자율성·다양성 기반 맞춤형 연구지원	㉛	다양성과 기회균등	SDG 10
국가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연구	㉛	간접경제효과	SDG 8, SDG 9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사회연구	㉞	지역사회	SDG 11
포용적 연구지원	㉗	다양성과 기회균등, 차별금지	SDG 5, SDG 10
산업과 지역에 기여하는 인재양성	㉘, ㉛	간접경제효과, 지역사회	SDG 8, SDG 9, SDG 11
개방과 소통을 통한 협업 인프라	㉛	제품 및 서비스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	㉓, ㉔, ㉛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반부패	SDG 16
임직원 공감 형성	㉓, ㉔, ㉗, ㉘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인권투자, 반부패, 다양성과 기회균등	SDG 8
환경적 책임을 위한 노력	㉙, ㉚	에너지, 배출	SDG 7, SDG 13

연구지원으로 만드는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 CREATED BY RESEARCH SUPPORT

28 사회발전을 이끄는 R&D

38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연구자 지원

48 공공가치를 높이는 연구 인프라

01

사회발전을 이끄는 R&D



연구비/연구기간
자율 신청 제도 활용비율

2016년 30.6%

2017년 67.9%

4차 산업혁명기획과제 발굴

2017년 12건

인문사회분야 중장기
연구과제 지원 확대

2016년 276 과제

2017년 547 과제

연구 지원의 중요성

R&D는 현재 사회를 이해하고 미래에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사회와 국가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인문사회연구와 과학기술연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연구로 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한국연구재단의 효과적인 연구지원으로 연구현장의 수요를 채웁니다. 연구지원을 통해 다방면의 연구가 이루어져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재단은 혁신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 및 이행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은 세 가지 전략과제를 주축으로 연구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연구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맞춤형 연구를 지원하는 것, 국가의 성장동력인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연구를 지원하는 것, 현대사회에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의 근본을 탐구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인문사회연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율성 · 다양성 기반 맞춤형 연구지원

국가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연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사회연구

인터뷰



Q1. 현재 진행하고 계신 연구와 생애 첫 연구사업 지원 계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한 수화동작 인식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활용되고있는 음성인식기술의 사용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술입니다. 2D 카메라를 이용하여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신진연구자 사업을 신청하였지만 경쟁이 치열하여 몇 년 동안 낙방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애 첫 연구사업이 신설되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여 지원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연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Q2. 생애 첫 연구사업이 가지는 특별한 의의가 있을까요?

A. 연구실적이 연구지원에서 중요한 평가요인이라는 점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신진연구자는 실적을 쌓을 기회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연구자들과 함께 경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주체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해주는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이나 생애 첫 연구사업은 저와 같은 연구자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실패의 가능성은 높지만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의 초석이 되는 신진연구자지원사업과 생애 첫 연구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향후 생애 첫 연구 사업을 위한 개선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이미 훌륭한 사업이지만 더 발전적인 사업이 되도록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진연구자지원사업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바로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은 경쟁이 심하여 이제 막 신진연구자를 벗어난 연구자들이 중견급 연구자들을 제치고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진연구자지원사업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사이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단기에 큰 금액을 지원받는 것보다는 소액이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연구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연구자들이 단기적인 성과를 쫓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생애 첫 연구
광운대학교
이기백 조교수

자율성·다양성 기반 맞춤형 연구지원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성과는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연구자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창출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맞춤형 연구지원을 통해 개별 연구의 특성을 존중하고 연구 몰입도를 높이며 이와 동시에 창의성 극대화를 위한 학문간 융·복합 연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연구지원 기본 방향

장기적·안정적 연구지원

이공분야 장기연구와 후속연구 지원을 강화하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연구기간을 6년부터 최장 10년까지 설정하였고 종료된 연구이더라도 후속연구를 지원하여 연구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연구 과제를 장기·후속연구로 지원한 결과, 연구자 만족도는 93.2점에 달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낮은 선정률과 중장기 연구지원 부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종료된 과제 중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를 후속연구로 지원하기 위해 중견사업 내 최초로 중장기사업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연구자 맞춤형 자율성 기반 지원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주제를 선택하는 연구자 자율 신청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도의 활용비율이 2016년 30.6%에서 2017년 67.9%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공학 전 분야에서 연구 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전임/비전임에 제한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구자가 스스로 연구내용에 대해 결정하여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연구 효율성과 연구자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생애 첫 연구 등 연구 기회 보장

연구역량을 갖춘 신진연구자들의 연구기회를 보장하고 그들의 연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애 첫 연구’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의 신진연구 지원보다 지원대상을 더욱 구체화하여 연구자들이 첫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신진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애 첫 연구 지원

구분	신진연구	(신설) 생애 첫 연구
대상	박사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전임·비전임 교원 및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원	기초연구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4년제 대학의 만 39세 이하 전임교원
기간	1~5년, 최대 10년	1년
연구비	0.5~1억원(대학별 간접비 포함)	0.3억원 (간접비 5% 이내 적용)

연구지원 저변 확대

이공학 분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여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실패 가능성을 전제하여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연구과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국형 성실실패 용인제도(Small Grant for Exploratory Research)를 도입하였습니다.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몰입을 위한 최종보고서 간소화, 최종평가 미 실시 등 행정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비/연구기간
자율 신청과제
비율 67.9%



생애 첫 연구
1,181개 과제
신규 지원



이공학 개인기초연구
지원사업 고객만족도
90.2점



연구현장 행정부담 완화

연구자가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행정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느끼는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도전적인 연구를 시도하고 연구자우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계획서 등 행정서식을 간소화하여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부담 완화 노력

구분	2017	2018
개인연구 연구계획서	신진연구(20쪽) 중견연구(30쪽)	신진연구(5쪽), 중견연구(10쪽) 연구자의 연구 수행능력 추가
집단연구 연구계획서	선도연구센터(70쪽) 기초연구실(25쪽) 그룹별 연구계획 별도 기술	선도연구센터(35쪽) 기초연구실(15쪽) 그룹별 연구계획 포함 기술
중간/최종보고서	연구목표 달성도 중심	과정중심의 연구결과 작성

융합연구 활성화

융합연구센터

융합연구센터(Convergence Research Center)는 학문분야를 넘어 융합연구 그룹을 육성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 국민요구 등을 해결하는 창의적인 결과물과 세계적인 수준의 신지식을 창출하는 집단연구입니다. 이공계, 인문, 사회, 예술 분야 등 다양한 다양한 대학원 학과를 보유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집단연구를 통해 차세대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젊은 연구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연구

인문학 및 사회과학적 상상력과 통찰력, 예술적 창조성, 과학적 합리성 등을 융합하여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6개 분야에 ICT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문헌정보/콘텐츠 분야를 추가하여 더욱 다양하고 넓은 분야의 연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문화융복합 연구 분야
① 여성/소비자/가족/아동/청소년 ② 음악/연극/영화 ③ 미술/디자인 ④ 과학기술학 ⑤ 무용/체육 ⑥ 심리학/뇌/인지/감성과학 ⑦ 문헌정보/디지털콘텐츠/문화콘텐츠

STEAM연구

STEAM 연구(Science and Technology Enhanced by Liberal Arts and Mission)는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융합하여 새로운 융합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을 고도화하고 신사업을 활용하여 확산 가능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TEAM 연구 분야
① 미래유망융합기술 파이오니어 ② 첨단사이언스 교육허브 개발 ③ 민간기술협력 ④ 바이오닉암메카트로닉스 융합연구개발 ⑤ 스포츠과학화 융합연구 ⑥ 과학문화 융합콘텐츠 연구개발 ⑦ 전통문화 연구개발 ⑧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 ⑨ 자연모사 혁신기술개발 선행연구

4개
CRC 과제 지원



STEAM 융합연구
76과제 (신규27개)



국가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

과학기술로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현재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미래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가의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많은 과학기술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산업, 원자력안전과 같은 최신훈이슈를 반영하는 연구는 더욱 희망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

8대 건강문제 해결 연구

2013년 이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생애단계별 주요 질환을 분류하였습니다. 생애단계를 유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로 분류하고 각 단계에서 국민의 삶을 저하시키는 질환들 중에 R&D를 통해 해결가능한 8대 건강문제를 도출하였습니다. 2017년, 사상최대 규모의 신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8대 건강문제 관련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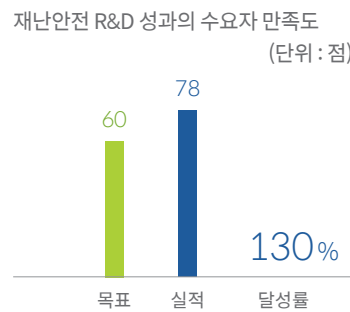
생애단계	8대 건강문제	추진과제	해결시기
유아	행동장애	발달장애 진단장비	5년 이내
		자폐증, ADHD 등 조기진단	10년 이내
청소년	비만 중독	비만관리 콘텐츠/앱 개발	2017 종료
		인터넷/게임중독 원인분석 및 중독치료	5년 이내
청장년	생활습관개선 질병자가진단	한의학기반 생활습관관리	2017 종료
		비침습성 진단	3년 이내
		항암제, 암동반진단제	계속
	한국인 4대 중증질환 (암, 뇌질환, 심혈관 질환, 난치성질환)	모바일복합 진단기기	계속
		뇌출혈 혈관 영상진단기기	2017 종료
		결핵 혁신신약	5년 이내
노년	치매	뇌질환 영상진단	10년 이내
		세포유전자치료제	5년 이내
	노령화	치매조기 예측 뇌지도 작성연구	5년 이내
		바이오임플란트, 생착주사제	2017 종료
		운동보조기기: 스마트휠체어 개발	계속

공공복지안전 연구

식품사고, 테러와 같은 인위적 재해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염병, 해양환경 등의 자연 재해와 공공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핵심기술과 보조기술의 정의서를 특성화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연구결과를 국민과 수요기관에 공개하여 홍보와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플랫폼 연구

현장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종 재난안전 분야 기술개발에 공통적으로 필요하거나 개별 부처 및 재난 상황에 맞게 응용이 쉬운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이력을 분석하여 위험분석과 피해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재난상황 대응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자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기반기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기반기술을 선정하여 신규과제로 기획하였습니다. 핵심기술은 인공지능(AI)과 인간-기계 연결(HCI)이며 9개 세부과제를 지원합니다. 기반기술로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이 있으며 3개 세부과제를 기획하였습니다. 핵심기술과 기반기술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4차산업 핵심기술

핵심기술	PM 분야	기획/발굴 분야(2017년 신규과제 공모)	연간 연구비
인공지능 (AI)	정보·융합	지식·데이터 융합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	7.5 억원
		영상기반 상황인지 기술, 자연언어처리 기술	10 억원
	뇌·첨단의공학	차세대 지능형 기계학습 원천기술	10 억원
		감성지능 신경회로 기반 인공지능 기술 개발	7.5 억원
인간-기계 연결 (HCI)	정보·융합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연지능 및 뇌질환 규명 기술 개발	7.5 억원
		감각 통합 인지회로 연구를 통한 가상현실 적용 기술 개발	7.5 억원
		스마트 인터랙션 원천기술 개발	10 억원
		선택적 인터랙션 원천기술 개발	7.5 억원
		초실감 원격가상 인터랙션 원천기술 개발	10 억원

4차산업 기반기술

기반기술	PM 분야	기획/발굴 분야(2017년 신규과제 공모)	연간 연구비
빅데이터	정보·융합	이종 빅데이터 통합·처리 원천기술 개발	7.5 억원
		소재 빅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10 억원
사물인터넷	나노·소재	VOCs 복합 나노소재 및 IoT 통합 시스템 기술 개발	7.5 억원

미래유망기술 발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투자하여 미래유망기술 상시발굴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4단계에 걸친 미래유망기술 상시발굴시스템은 세계적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국, EU, 일본, 중국의 공공R&D 투자정보를 분석하여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R&D 및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였습니다. 미래유망기술의 발굴로 선진 과학기술에 발맞춥니다.

미래유망기술 상시발굴시스템

글로벌 공공R&D 투자정보 DB구축 4개국 58만건	데이터분석을 통한 유망기술 추출 R&D, 시장동향 분석	미래유망기술 확정 산·학·연 핵심전문가 등	공공R&D 투자정보 DB검색 시스템 구축 포럼(4회) 개최
---------------------------------	-----------------------------------	----------------------------	-------------------------------------

12대 국가미래유망기술

- 신체증강휴먼
- 웰니스 맞춤형 관리
- 인공 장기 바이오
- 뇌기능 향상 기술
- 극한환경 적응형 4D 소재
- 차세대 자동차용 초비강도 소재
- 차세대 로봇
- 미래 초연결 지능통신
- 미래교통 시스템
- 재난 감지 및 대응기술
- 에너지 저장 기술
- 스마트 하우스

4개국 58만 건의 R&D 정보 분석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사회연구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경제논리에 치우쳐진 학문연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문학연구를 확대하여 비판성, 성찰성, 공공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인문사회연구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분야 토대 강화

인문학분야 중장기계획

인문학의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인문학분야 최초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내외 정책과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계획을 세우고 4대 전략 27개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인문학에 특화된 연구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인문교육 강화, 인문학의 사회적 확산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문학분야 중장기 계획

<p>인문교육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양교육 지원체계 구축 기초인문 교육모델 창출 지역인문학센터 중심으로 인문교육 실시 	<p>인문연구 진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구 지원 확대 중장기 지원 트랙 신설 소규모 연구모임 신설 및 박사후 연구원 연수 기회 확대
<p>인문성과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학 대중화 기반 마련 인문성과의 국제적 확산 국내 인문학 DB 종합 포털 서비스(KRM) 구축 	<p>인문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학 진흥 심의회 운영 전담조직 지정 및 운영 기초 인문학 연구지원 법령 제정 및 안정적 재원 확보

인문학 진흥사무국 신설

학문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인문학법에 따라 인문학 진흥을 전담으로 하는 인문학 진흥 사무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연구, 정책,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교류협력 등 인문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총괄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운영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하여 학술지원사업의 개선점, 연구성과의 활용 및 대중화, 인문학 DB구축, 전문인력 양성, 법령 신설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류-소통-협업으로 이루어진 협력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인문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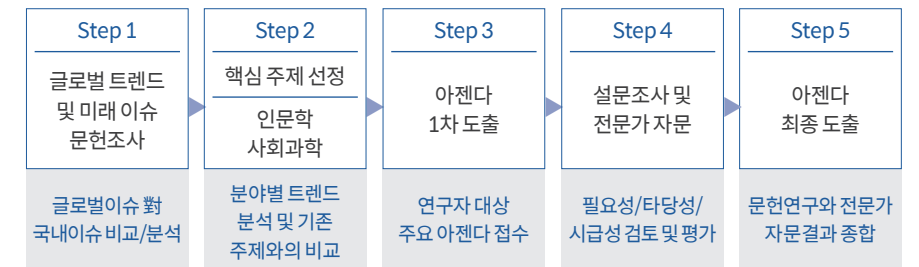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지원사업의 목적은 대학 내 인문학 연구소의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인문학 연구를 다양화·대중화하는 것입니다. 2017년에는 ‘Post-HK사업’을 2기 인문한국으로 신규 출범시키면서 연구분야의 다양화를 위해 인문연구를 소외/보호분야, 창의/도전분야, 국가전략분야, 융복합분야로 유형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연구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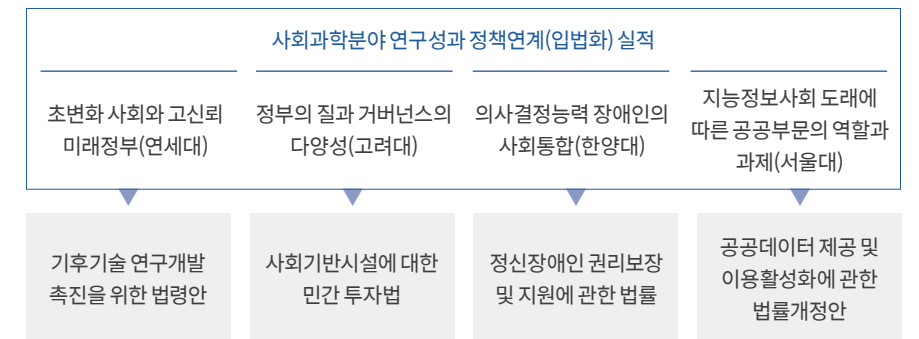
국가정책수요 아젠다 발굴

사회과학 분야 학술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사회과학연구지원(Social Science Korea)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수준의 연구집단(Think Tank)을 육성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아젠다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4개 대학의 사회과학 분야 연구 성과는 정책과 연계되어 법적으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젠다 도출 과정



<p>인문분야 아젠다(12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과 소통을 위한 인문학 인문학 기반의 세계시민교육 탐색 4차 산업혁명과 인간중심 가치 탐색 융합기반사회를 위한 인문학 등 9개 	<p>사회과학 아젠다(4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문제 해결과 리스크 관리 4차 산업혁명과 융합적 공진화 다차원적 삶의 질 뉴노멀 시대의 신(新)사회적 규범과 공공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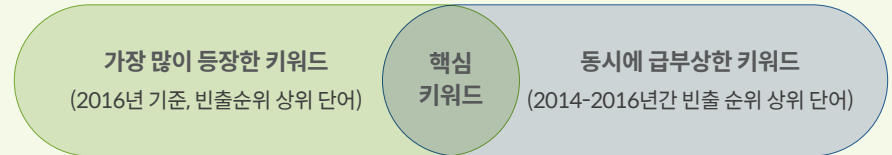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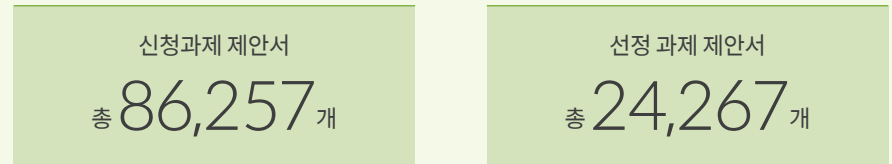
사회과학-이공분야 융합연구

사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이공분야와의 융합연구를 통해 연구성과의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사회과학적 통찰력이 정보통신기술, 환경공학기술, 생명공학기술 등 유망 기술에 접목되어 도출된 연구성과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사회를 이롭게 합니다.

<p>I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융합 지역혁신모델 개발 지능정보사회 역할과 과제 사물인터넷 사회적 책임 	<p>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세먼지 공간 분석 에너지·기후 패러다임 전환 삶의 질과 행복(재난) 	<p>B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 뇌 기반 연구 웰빙시대 삶의 질 제고 정신건강 증진 환경 구축
--	---	---

키워드로 읽는 대한민국 학술연구 트렌드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3년간 연구제단에 접수·선정된 연구제안서를 분석하여 연구별, 연구분야별 단어의 빈도를 파악하고 순위를 산출하였습니다. 키워드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학술연구가 사회·문화·경제·기술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구지원사업의 기획 및 관리를 위한 기반으로 키워드 분석이 활용되며, 향후 연구자 분석과 연구의 응용·개발·탐색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공분야 트렌드

이공분야는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학학, 공학, ICT·융합연구에 따라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통적 키워드가 다수 등장하였습니다. 자연과학분야에서는 신소재, 청정에너지 등 응용기술로 연계가 가능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 우주론 등 전통적인 키워드가 다수 포진되어 있고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도 급부상 하였습니다. 생명과학과 의학학은 성인병, 암 등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는 질병의 치료와 노화, 면역 등 생물정보학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요 관심 연구입니다. 공학은 자연과학분야와 많은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친환경에너지가 가장 주목받는 연구 주제이며 복합소재, 나노 섬유와 같은 소재 관련 연구도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ICT·융합연구분야에서는 전자·정보분야 연구가 꾸준히 진행 중이며 ICT 기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바이오·의료융합연구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ICT·융합연구는 이공분야 중 가장 많은 키워드가 상위에 위치하여 현재 대한민국 과학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분야 트렌드

인문사회분야는 중국, 동아시아 등 지정학 관련 키워드와 젠더, 노인 등 사회구조와 관련 키워드가 주류로 등장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동아시아 정세와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중국, 동아시아, 북한과 같은 주제는 지속적으로 연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 사회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얹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구방법론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척도 등을 차용한 키워드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 정체성, 감정 등 인식론에 기반한 연구의 급증은 인간 인식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Special Page

분야별 학술연구 키워드

■ 가장 많이 등장 ■ 급부상



이공분야	
신청과제	선정과제
1. 바이오마커 4. 3D프린팅 2. 딥러닝 5. 딥러닝 10. 세포사멸 9. 동물모델 6. 가상현실 3. 빅데이터 4. 머신러닝 9. 나노입자 1. 머신러닝 7. 차세대염기서열분석 2. 사물인터넷 6. 비만 7. 그래핀 10. 촉매 8. 골다공증 3. 빅데이터 5. 인공지능 8. 마이크로RNA	5. 사물인터넷 2. 바이오마커 2. 딥러닝 8. 빅데이터 8. 인공지능 5. 3D프린팅 1. 마이크로RNA 10. 미토콘드리아 3. 머신러닝 7. 활성산소 6. 비만 9. 세포사멸 9. 당뇨병 4. 바이오마커 3. 딥러닝 10. 폐암 1. 마이크로RNA 7. 나노입자 4. 머신러닝 6. 가상현실

■ 가장 많이 등장 ■ 급부상



인문·사회분야	
신청과제	선정과제
6. 질적연구 3. 정체성 2. 중국 5. 문화 4. 인공지능 10. 공동체 1. 빅데이터 1. 빅데이터 4. 한국 9. 근대 9. 척도개발 7. 인성교육 3. 한국 2. 중국 8. 기억 10. 노인 7. 동아시아 6. 일본 5. 근대 8. 스토리텔링	5. 기억 1. 정체성 2. 빅데이터 8. 중국 8. 질적연구 5. 기억 3. 근대 10. 공동체 1. 정체성 3. 근대 6. 한국 9. 소통 9. 불교 4. 동아시아 7. 척도개발 10. 은유 2. 빅데이터 4. 동아시아 7. 역사 6. 북한

*자료 출처: NRF ISSUE REPORT 2017_09호

02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연구자 지원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

경제부총리상
수상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지원

2016년 133명
2017년 324명

NRF 5G 정책 수립

제도·조직·평가·성과·국제
협력의 글로벌화를 위한
34개 과제 추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확대

2016년 57개교
2017년 75개교

연구자 지원의 중요성

우수한 연구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직결됩니다. 연구자가 충분한 교육과 연구기회를 제공받아 연구 역량을 키운 후에 산업계, 지역사회, 국제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국가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연구자 지원의 핵심입니다. 연구자에게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이 산업과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연구자 지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가 글로벌인재로서 세계를 무대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략 및 이행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지원은 크게 3개의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문과 연구자를 포용적으로 지원하는 것, 연구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 지역기반의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여 수요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포용적 연구 지원

글로벌 역량 강화

산업과 지역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

인터뷰

Q1.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 경력복귀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A. 현실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이 가정생활과 커리어를 동시에 이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리적인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로 잠시 연구생활을 쉬었다가 다시 복귀하려고 할 때에 성별, 나이, 경력단절 기간으로 인해 많이 위축되는게 사실입니다.

Q2. 경력복귀하는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A. 여성연구자들이 용기를 내어 사회로 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공감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와 연구재단 차원에서 여성과기인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의 배려가 큰 힘이 됩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의 박사과정 학생 중에 야기 엄마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육아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 학생도 배려에 힘입어 연구에 몰입하게 되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3.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사업이 어떻게 연구경력에 도움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A. 제가 연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한국연구재단의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에 선정된 것입니다. 경력복귀를 하면서 연구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신청자격에 만 40세 이상이라도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에 제가 해당이 되었는데, 연구재단이 나이와 같은 조건에 대해 융통성 있게 고려해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연구자의 가능성을 믿고 안정적인 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해주어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초기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재정적인 지원을 지속해주고, 해외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더 좋은 연구성과를 내고 최우수 연구자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Q4. 향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개선점을 말씀해주세요.

A. 여성과학기술인의 출산, 육아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원이 더 섬세하게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을 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은 유해물질에 많이 노출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출산에 있어서도 큰 걱정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연구를 잠시 중단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다면 여성과학기술인의 희생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귀한 기회를 얻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만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연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연구자로서 자리를 잡더라도 연구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
경희대학교
박은정 교수

포용적 연구 지원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
경제부총리상 수상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를 갖지 못했던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잠재력 있는 연구자들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들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학문과 연구자들을 지원하여 형평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 지원을 통해 여성들의 이공계 유입을 확대하여 연구현장에서 충분히 활동하고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경력개발, 전문성 강화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양성불평등, 이공계 기피현상, 경제인구 부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지원을 통해 취업 및 경력복귀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생애주기별 지원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역량개발	경력복귀 지원	여성 전문인사 활용
여중생, 여고생, 여대학(원)생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고경력 여성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멘토링 지원(12,982명) 공학연구팀 지원 (150팀) 지역 여성인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취업 중개 지원 글로벌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분야복귀 지원 교육·멘토링 지원 구인·구직 매칭 지원 재취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전문인력의 연구 지속성 확보 여성인사 지원 증가 2016: 3.4% 2017: 5.5%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예산		2,500백만원	2,800백만원	7,750백만원
경력복귀 인원수	정규직	17명	25명	99명
	비정규직	99명	108명	225명
	합계	116명	133명	324명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여성공학인재양성 (Women in Engineering Undergraduate leading Program)은 여성 친화적 공학교육시스템으로 전공분야 현장에 필요한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여학생 유망분야에 맞춰 공과대학 여학생에게 특화된 교과과정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여학생들의 자신감 향상과 진로 상담, 여성공학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기반 구축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들을 개최하였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10주년을 기념하는 '여성인재 멘토링의 날'을 정하고 우수 멘토링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포럼, 토크콘서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여성관련 정책이슈를 환기하고 정책적 지원을 설계하였습니다.

14개 공과대 여학생 1만명 지원



여성인재 멘토링 프로그램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보호연구 지원 과제 26.92% 확대



보호학문 분야 지원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학문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연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2016년도에 26개의 보호연구 과제를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33개의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까지 100개의 과제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장기 보호학문 분야를 도출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외분야 117개 과제 지원



소외 분야 지원

학술연구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인문사회와 사회과학의 소외 분야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017년, 인문사회 소외 분야에서는 총 8개 사업에서 117개 과제를 지원하였고,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최근 5년간 성과를 분석하여 40개의 유망한 소외 연구 분야와 25개 소외 과제를 지원합니다. 또한 희귀언어 자료를 축적하고 번역기준을 마련하여 인문사회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역대학 우수연구자 지원 강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환경이 열악한 지역대학 이공학 개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초연구의 수도권 편중현상을 방지하고 균형 있는 연구지원 생태계를 조성하여 다양한 지역연구자들에게 연구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시행하였습니다. 287개였던 신규과제 수가 2017년 508개로 대폭 증가함으로써, 2017년 기준으로 이공학 개인 기초사업의 비중이 수도권 51.7%, 지역 48.3%를 기록하여 지역 간 편중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 대학 우수 과학자 사업 확대

구분	신규과제			전체과제		
	2016년	2017년	증감	2016년	2017년	증감
과제 수	287	508	77.0%	604	990	63.9%
연구비(백만원)	13,900	18,916	36.1%	29,717	40,513	36.3%

지역대학 우수 과학자 사업 지역 통계

2016년				2017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43.6%	23.7%	23.3%	9.4%	37.6%	21.9%	26.8%	13.8%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사업

퇴직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을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에 참여시켜 그들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과학기술인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ODA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력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ODA 사업의 인력난 해소, 예산 절감과 더불어 개도국의 지속가능성 및 국제사회 기여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

국내 연구역량을 선진화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강화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국제공동연구와 융합연구 지원을 확대하여 글로벌 연구생태계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역량 제고

국제공동연구 확대

해외의 우수한 연구실과 심층적인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의 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생명과학 분야에서 국제공동연구 대상이 유럽지역 연구팀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전 세계로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공동연구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연구 역량

미래 국가발전 핵심 분야에서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석·박사급 인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K21 플러스(Brain Korea 21 Plus) 사업이 있습니다.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지원금, 국제화경비 등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BK 석·박사 배출 인력의 수가 전년대비 27.2% 증가하여 2017년에 9,678명에 이르렀고, 국내 R&D 피인용 상위 논문에서 최상위권에 도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연구재단은 국제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으로 한국형 과학기술의 해외 진출과 과학한류를 이끌고 개도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현지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에서 운영했던 해외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를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에 신규로 설치하여 아프리카 권역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지원, 사업예산 확대 등 사업현장과의 소통으로 다각적인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개도국의 일자리를 창출-현지주민의 자립-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신규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신규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2017~2020)	
탄자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기관: 벨스만델라 과학기술원 •주요분야: 에너지 연계형 농업기술 창업 및 인력 양성
에티오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기관: 아다마과학기술대학교 •주요분야: 에너지 기반 소규모 관개농업 수자원 및 식수 확보 적정기술

ODA사업 개선 사항

구분	개선(2017년)	개선효과
진입장벽 완화	1국가 2대학 지원	우수대학 참여 유인
대응자금 폐지	대응자금 폐지	대학 부담 해소
현장중심 지원	종료평가 및 추적평가 신설	개도국 자립 촉진
사업예산 확보	48.22억(24과제)로 약 20% 확대	사업 지속성 확보
직원역량 발휘	사업단과 수시 소통·컨설팅	신속한 문제 공유·해결

WFK
16개국, 48명 파견



WFK 과학기술지원단(TPC)

WFK(World Friends Korea) 과학기술단(Techno Peace Corps)사업은 국내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선발한 후, 개도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양성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팔의 특수교육 ICT 인프라 구축, 캄보디아의 수동 이양기 실용화를 통한 농업분야 지원,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장치 개발과 같은 프로젝트들을 시행하여 개도국의 물질·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지인들의 자생적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80명 지원,
242억원 예산



글로벌박사펠로우십(GPF)

우수한 대학원생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창의적인 박사도 양성하는 글로벌박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235명의 신규 학생과 기존의 675명의 학생을 지원하여 총 880명의 대학원생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정 학생의 15%를 비수도권 지역대학원 우수 대학원생으로 선발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대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원으로 양질의 연구성과를 도출하여 1,133건의 SCI급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양한 국제 행사 개최

한국연구재단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국내외 인사들을 초청하여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국외 연구지원기관장들의 연설과 국내 유명 과학기술인들의 발표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공동연구와 융합연구,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가 2018년 세계 연구지원기관 협의회(Global Research Council) 공동 주최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70여 개 국가의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정책 행사를 유치하여 공공부문 R&D 정책 글로벌화에 더욱 기여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입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제학술포럼



연구과제 영문접수 체계

국내 외국인 연구자를 위한 연구과제 영문접수를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공 분야 기초연구사업과 국책연구에서 시행하였으나, 2018년에 기초연구와 인문사회 연구, 개인연구 전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설명 자료 등 제반 문서의 영문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문 접수를 시행하여 국경을 뛰어넘는 연구성과 창출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지역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

문제해결기법 강의 참여학생 88% 만족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선진 과학기술에 발 맞추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우수한 인재가 끊임없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산업과 지역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로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산업, 학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자 개인의 역량 개발도 목적으로 합니다.

산학 밀착형 인재 양성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 양성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여러 학문이 융합된 실전 연구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실전문제연구팀(X-Corps)을 신설하였습니다. Xmind-Corps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로 기업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팀을 의미합니다. 총 2,099명의 학생이 416개의 팀을 이루어 참여하였고, 권역별로 문제해결기법 강의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 역량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실전문제연구팀 운영

기업(사회) 문제 발굴 <4월>	실전문제연구팀 구성 <5월>	사전 오리엔테이션 <6-7월>	연구 수행 <8-9월>	우수 성과 발굴 <12월>
기업(사회) 문제해결형 연구주제 발굴	팀장(대학원생), 팀원(학부생 2~5명)	연구수행 사전 교육, 산업체 멘토지정 등	산업체 멘토, 지도교수 공동지도	경진대회 개최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공과대학의 주도로 핵심 유망 산업군을 선정하고 산·학·연 간의 기술교류 및 협동연구를 촉진하여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공학연구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산업현장과 대학교육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교육과정 혁신을 시도하였습니다. 미래산업구조 개편 선도 분야로 나노, 바이오, 인공지능, 자율주행, 에너지, 초연결 빅데이터 등이 선정되었으며, 연구교수와 석·박사 과정생으로 이루어진 연구팀이 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과정

인력양성 계획 수립 <5월>	현장방문 컨설팅 <7월>	교육혁신 모델 개발 <8월>	교육과정에 활용 <9월>	워크샵 개최·공유 <11월>
사업단별 특화분야 인력양성 계획 수립	5개 사업단 현장방문·컨설팅	컨설팅 결과를 반영 PBL 교육과정 개발	교과목에 실제 도입·적용	상호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

실리콘밸리 인턴십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정신을 체득할 수 있는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창조적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개발하고 해외 취업 및 창업에 기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사전교육을 제공하고 항공료, 비자발급비, 일부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참여 학생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단 5개 지원



차세대 공학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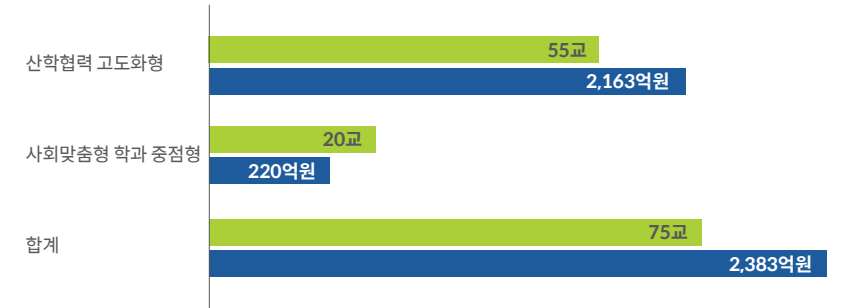


사회수요 맞춤형 산학협력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한국연구재단은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을 통해 우수 인력양성, 대학 내 부가가치 창출, 지역 발전, 취업난 및 구인난 해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채용으로 연계되도록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청년 아이디어 실현 크라우드 펀딩, 릴레이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규로 기획하였습니다. 20회에 걸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산업 수요를 면밀히 조사하고 기존 57개 학교에서 75개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LINC+ 육성



캡스톤 경진대회



산학협력 엑스포 만족도 90.3점 (2016년 85.35점)



산학협력 엑스포

산학협력 인프라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산학협력 엑스포를 최초로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연구재단이 지원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개최된 이번 엑스포는 부산광역시에서 3일간 열렸으며 총 497개 기관이 참여하여 667개의 부스를 운영하였고 3,5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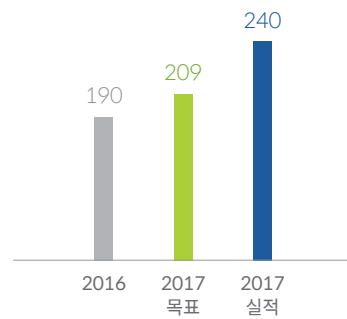
산학협력 엑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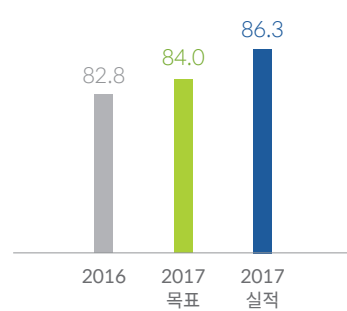
기술창업탐색팀
만족도 88.2점
(2016년 86.3점)



BRIDGE 기술이전수입(단위: 억원)



BRIDGE사업단 만족도(단위: 점)



R&D 일자리 창출

기술창업 활성화

학생과 연구원이 기술사업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64개 기술창업탐색팀(Innovation-Corps)을 지원하여 기술창업의 성공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재단은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창업중심대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창업팀 대표의 자격을 강화함으로써 창업기술의 수준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창업을 위한 교육과정은 단계별, 타겟시장별, 기술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술창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예산 또한 2017년 37억 원에서 2018년 95억 원으로 157% 증가하였습니다.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 지원(Beyond Research Innovation and Development for Good Enterprises) 사업은 기업과 대학, 대학과 대학 간의 공유와 개방적 협력을 통한 혁신으로 대학이 보유한 창의적 자산(기술, 아이디어, 특허)이 이전되고 창업으로 발전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공·실패 사례를 공유하여 대학 기술사업화 노하우를 상호 개방함으로써 협력과 혁신을 도모하고 더 많은 실용화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

사회와 산업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연구재단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체와 학생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양측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산업체의 직접 고용과 건설성 기준 강화 등의 학생 보호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사례

대학	교육과정	주요 교육 내용
구미대	Smart Factory반	Smart Factory 시스템 운용, 공정관리, 물류관리 등
동양미래대	차세대 ICT 개발과정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SW, VR 3D콘텐츠 개발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역산업과 사회 여건을 분석하여 56개의 대학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고 15개의 우수 모델을 발굴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각 대학에 기업신속대응센터를 의무 설치하여 발굴된 비즈니스 모델의 개선과 정교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우수 비즈니스 모델 사례

대표사례	지역산업/사회 여건	비즈니스 모델
보령 아주자동차대	충남 북부, 서해안 지역에 Special Vehicle 산업 벨트 형성	자동차 부품산업기반 맞춤형 특장차 Complex 구축
제주 한라대	제주지역의 관광, 청정 헬스푸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제주국제자유도시 Slow-Tech 실용기술 기반 비즈캠퍼스 구축
창원 문성대	경남지역 전통적 기계산업 및 단지 활성화(지능형 생산기계, 해양플랜트, 항공, 기계소재부품 등)	지능형 생산기계산업 특화 비즈캠퍼스 구축

Special Page

여성과학 기술인의 사회복귀 지원

추진배경

연구·산업계는 상대적으로 창의성, 정밀함, 세밀함이 강점인 여성 전문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경력단절과 미취업으로 연구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경력을 이어가고, 연구·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약 96만 명	경력단절/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 약 30만 명	석·박사급 인력 약 1.4만 명
--------------------	-----------------------------	----------------------

추진내용

여성공학도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여성공학인재 양성지원	취업지원	재취업지원
여성공학인 교육과정 개선 진로, 취업 및 창업 지원	여성과학인 정책제도 지원 취업 및 경력개발 지원	경력 복귀·유지 교육 및 컨설팅 R&D 경력복귀 및 취업중개

추진성과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재취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많은 여성과학기술인이 사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적 개선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사회 활동 참여는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끌어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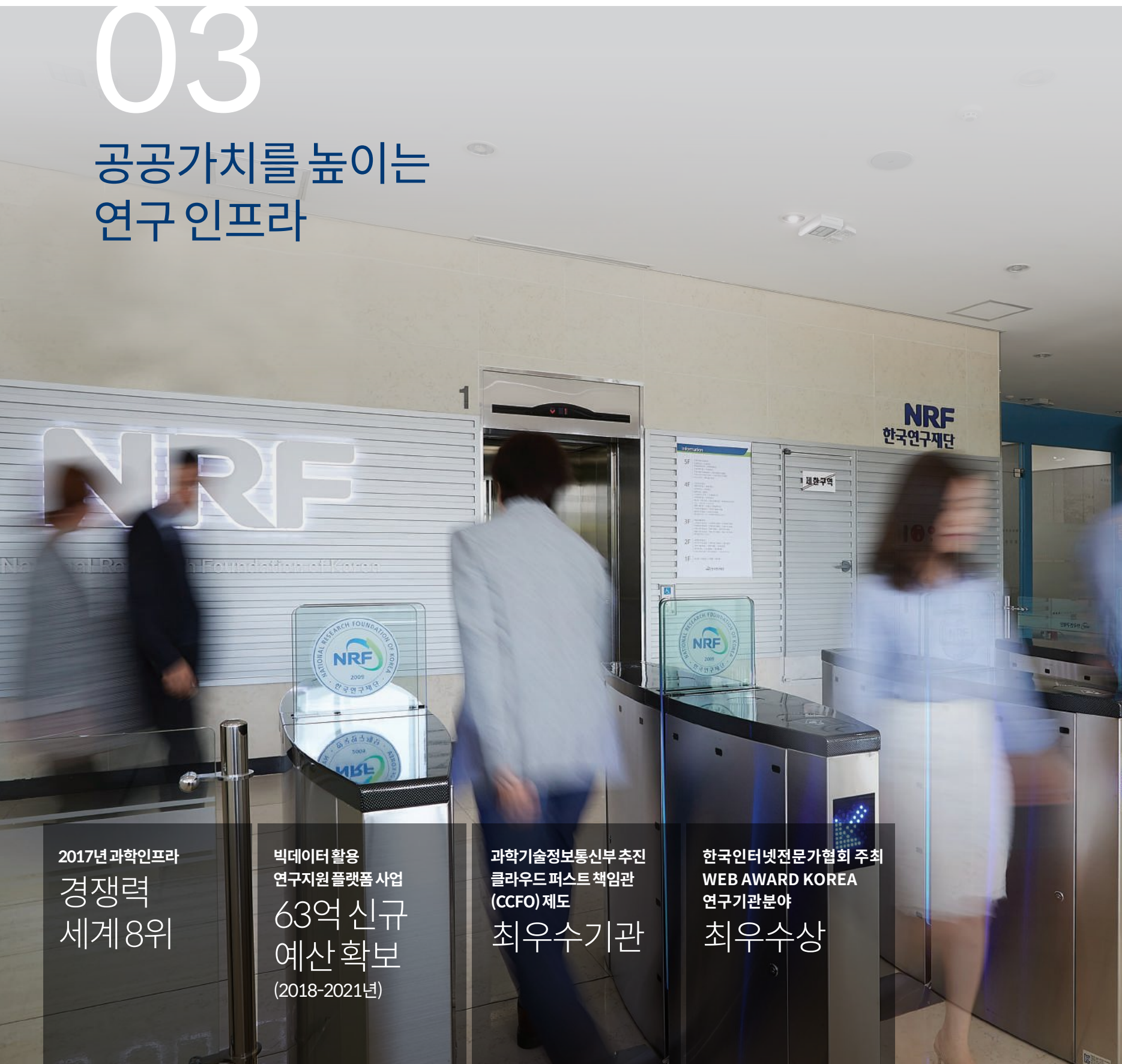
지원방법	지원내용	추진성과
정책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114개 기관 시행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지정	138개 기관 346명 담당관 지정
취업지원 및 경력개발	취업지원 경력개발 교육	교육생 취업률 60.8% (107명) 정규직 채용 38.5% (25명)
	취업중개 플랫폼 운영	학술 지원 175건 온·오프라인 취업중개 3,822건
R&D 경력복귀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사업	총 324명 취업 지원 연구활동 지속률 85%
창업지원	창업 인식확산 교육	창업교육 139명 수료 창업아이디어 16건 발굴
	창업 역량강화 컨설팅	9개 팀 컨설팅 추진

<일자리 창출 선순환 형성>



03

공공가치를 높이는 연구 인프라



2017년 과학인프라
경쟁력
세계 8위

빅데이터 활용
연구지원 플랫폼 사업
63억 신규
예산 확보
(2018-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진
클라우드 퍼스트 책임관
(CCFO) 제도
최우수기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주최
WEB AWARD KOREA
연구기관분야
최우수상

연구 인프라 조성의 중요성

연구와 연구자를 뒷받침하는 연구 인프라는 민간기관에서 구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은 국가 연구 관리기관으로서 연구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며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구기획, 선정평가, 연구비 집행, 연구지원, 연구성과 활용 등 R&D 프로세스 전주기를 관장하며 국가 R&D를 통한 공공 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략 및 이행

한국연구재단은 세 가지 전략과제를 중점으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방과 소통을 기반으로 연구자 및 유관기관과 협력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평가지표 개선과 우수한 평가자 확보 등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세 가지 전략과제입니다.

개방과 소통을 통한 협업 인프라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인터뷰



Q1. 핵심평가자의 역할과 평가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저는 핵심평가자로서 연구재단의 기본연구, 신진연구, 중견연구 등 다양한 연구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중에서 우리나라의 과학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선정합니다. 저는 무기화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화학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대해 평가합니다. 연구제안서가 접수되면 온라인으로 평가자가 제안서를 확인합니다. 그 후에 다수의 평가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Q2. 연구사업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제가 생각하기에 연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피제도의 실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피제도는 연구 신청자와 같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거나 사제기간인 평가자를 연구 평가에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상피제도를 철저히 지켜줌으로써 연구평가에 개인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를 차단합니다. 상피제도는 현재 연구재단에서 훌륭히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연구평가자 풀(pool)을 확대하고, 평가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평가자를 섭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연구재단이 많은 경험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여서 그런 부분은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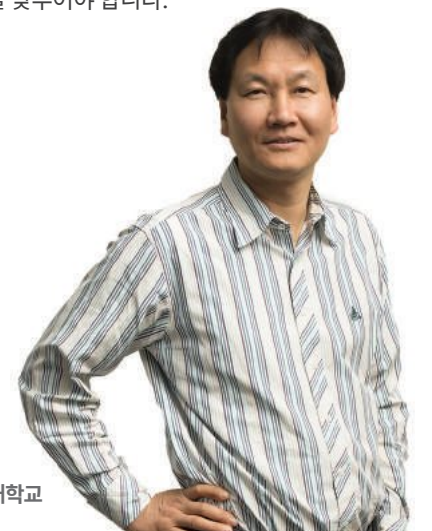
Q3.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가 주는 공공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된 연구과제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산업에 이바지한다면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다

고 생각합니다. 좋은 연구성과는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궁극적으로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도 그 영향이 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평가하는 무기화학 관련 연구 중에 항암치료 연구가 있습니다. 항암치료 연구가 좋은 성과를 낸다면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넘어 암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Q4. 향후 연구사업 평가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점을 말씀해주세요.

A. 연구재단이 평가제도를 아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연구의 창의성과 성과창출이라는 두 가지 평가 주안점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게 되면 평가의 공정성과 연구의 발전가능성을 모두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진연구자 평가는 창의성을 중요하게 보고 중견연구자 평가는 성과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등 적절히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핵심평가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철 교수

개방과 소통을 통한 협업 인프라

Middle-up 과제 확대
138과제, 822.3억원
(2016년 19과제, 96.6억원)



기획위원
5,171명 참여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지원 절차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방향성 연구지원이 아닌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방과 소통의 확대

연구기획 시스템 개선

개방성과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집단지성을 활용하고 연구자의 창의성을 진작시키는 R&D 기획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기획시스템으로 사용되는 RFP 시스템은 제안요청서(RFP)를 온라인에 먼저 공개하여 과제를 신청하는 연구자의 연구제안서 작성을 돕는 시스템입니다. 4단계로 진행되는 이 시스템은 첫 번째 주제발굴단계에서 기술수요조사와 학회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국민과 연구자가 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RFP 기획단계에서는 온라인 공모를 통해 기획위원을 구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최근 Middle-up과제의 확대로 공정성 및 연구자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RFP 기획이 완료되면 사전공시와 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사업취지와 연구방향성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검토제를 도입하여 RFP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기획의 질적 수준을 담보합니다.

RFP 기획시스템



연구지원 실적 통계 제공

국민 누구나 온라인 연구지원통계시스템(KRS)에 접속하여 재단의 연구지원 실적과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단 출범 이후 누적된 164,322개의 과제와 총 260,727억 원의 연구지원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연구자, 재단 직원, 통계 담당자 등 다양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연구지원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여 연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연구업적 통합정보 공유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시스템은 대학과 연구자들의 연구업적을 국가차원에서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총 336개 대학이 KRI 시스템에 교내 자체시스템을 연동하거나 재단과 협약을 통해 KRIMS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학 통합정보시스템(KORUS)과 연결함으로써 보다 확장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현장 의견 수렴

연구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연구자 간담회, 지원사업 설명회, 설문조사 등 약 40회에 걸쳐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조사하였습니다. 연구수주 경쟁의 심화, 도전적 연구가 어려운 환경, 복잡하고 불편한 연구행정과 그물망 연구규제가 연구자들의 불만으로 접수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기초연구 추진체계 개편,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 연구행정 간소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학술지원사업 설명회



연구지원 협력 인프라 구축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시스템

여러 정부부처들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체관련 테러 및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기체분석식별·분석기술 연구가 있습니다. 경찰청, 환경부, 소방청 등 5개 부처의 공동개발로 국민위해인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종아동, 치안,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정분야 협력체계

특정한 전문분야의 연구개발은 다양한 정부부처 및 연구재단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생명공학분야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 사업과 글로벌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7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만큼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부처 종합관리시스템, 코디네이터 활용 등 협업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관기관 참여를 관장하는 TFT를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여 협업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정책이슈 적시 발굴

글로벌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R&D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개발의 아이디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이슈 모니터링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젠더 혁신, 오픈 사이언스를 글로벌 트렌드로 파악하였고, 다양한 현장의 수요와 증거 기반 정밀분석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R&D 이슈로 해외연구 관리제도, 연구정책 동향분석, 연구지원 제도분석 이슈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이슈들은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통합관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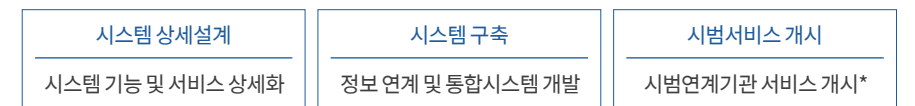
Ezbaro 시스템 개선

이지바로(Ezbaro) 시스템은 연구비 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부정집행을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연구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총 34건의 기능 개선과 18회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연구자의 연구 몰입과 투명한 연구비의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재단 Ezbaro 시스템을 기반으로 연구비 집행정보를 연계·수집·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세청 등 타 기관과 행정 상호검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체계



*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

빅데이터 활용
연구지원 플랫폼 예산
63억원(2018-2021년)

전문성과 공정성은 한국연구재단의 정체성과 맞물려 있습니다. 재단의 핵심업무가 연구과제 선정평가이며, 평가의 핵심은 전문성과 공정성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연구지원 전문기관으로서 더욱 신뢰받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자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AI 평가자 자동 추천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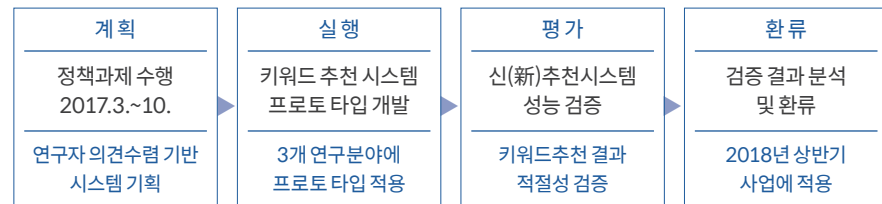
AI 평가자 자동 추천 시스템

연구과제에 가장 적합한 평가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평가위원 추천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연구자가 과제계획서를 제출하면 연구내용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실적 DB검색을 실시합니다.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당분야의 연구 경험이 있는 평가위원을 선정합니다.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평가위원을 선정함으로써 더욱 깊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큰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평가위원 추천 절차

연구자 과제 제안	AI 적용			전문 평가위원의 연구과제 평가
	과제계획서 연구내용 키워드 추출	실적DB 검색으로 최적연구자탐색	해당분야 전문가 추천	

시스템 기반 구축



동료평가(Peer Review) 문화 정착

평가자 풀(Pool) 확대

평가위원과 핵심평가자 풀의 확대와 질적 수준 향상으로 주요상 수상자, 업적우수자, 우수평가자로 제한했던 기존의 참여 요건에 핵심 대형사업 경험자를 추가하는 한편, 전문성 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DB를 연계하여 기업체 연구자와 고경력 연구자를 각각 13%, 11.5% 확대함으로써 전체 평가위원 풀이 전년대비 4.5% 증가하였습니다.

PM제도 강화

PM(Project Manager)제도는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제도로써, 연구지원사업의 평가절차 단계에서 분야별 연구비의 배분과 지원과제를 검토합니다. 연구환경의 변화와 분야별 과제 수를 고려하여 PM 전문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296개 분야의 577명의 전문위원을 377개 분야 701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수적 확대와 더불어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PM이 기획한 과제는 임기 후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PM 청렴교육과 RFP 참여 PM 명단을 공개하여 청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평가위원 풀(Pool)
2,833명 확대
(전년대비 6.4% 증가)

맞춤형 평가지표 개발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지표 개발

학문 분야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차별화된 평가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문 기초학문의 경우 아젠다 및 연구소의 발전가능성을 중시하며, 기초연구분야의 맞춤형 평가지표에서는 수학과 같은 이론분야와 기계와 같은 실험분야는 연구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연구기간은 1~5년, 6~9년, 10년 이내로 분류되고 평가방법은 신진급 연구자, 중견급 연구자, 리더급 연구자로 나누어 평가됩니다. 또한 기초연구분야의 경우 암맹평가는 연구자의 연구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신진연구와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에는 적용하고 중견연구와 글로벌연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문사회분야 평가 지표

연구 분야	평가 지표
인문기초학문	아젠다 및 참여인력의 우수성, 연구소의 체계성 및 발전가능성 등
해외 지역	글로벌 전문가 양성 계획 및 수행 가능성, 해외 교류 방안 등
소외 보호/창의·도전	주제의 보호 필요성, 창의성, 미래 발전 가능성 등
국가전략/융·복합	국가정책 반영 /타분야 연계 반영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

기초연구분야 평가 지표

구분	신진급 연구자	중견급 연구자	리더급 연구자
평가방법	암맹평가	역량평가	수준평가
	연구비 구간별 온라인/토론/발표 차별적 적용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지표

최근 평가의 패러다임은 기존 정량지표 위주의 평가에서 정성지표를 활용한 평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천연구는 연구 기간이 길고 사업별 특색이 강하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가 아닌 맞춤형 질적평가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 원천연구 연구단의 질적 성과를 관리하는 전담평가단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사업과 과제의 특성에 맞춘 특성화 평가지표를 운영합니다.

원천연구 사업별 평가지표

글로벌 프런티어	기후변화 대응	사회문제 해결형	재난안전 플랫폼	차세대정보 컴퓨팅
세계 최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성과의 우수성 등	신재생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과제 다부처공동성과지표	성과물 창출 및 기술사업화 사회적 기여도 등	개발플랫폼기술 적용 가능성, 실용화 계획 등	SW 기술역량, *HCI경우 다학제 추진체계

공공복지 안전연구	친환경 에너지타운	해양 극지	C1가스 리파이너리	국가전략 프로젝트
과제별 핵심/ 보조기술 정의서 활용	실증단지 구축운영 친환경타운 시설 구동 등	동토층 환경변화 인자관측 및 DB구축	수요기업 협의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	사업단장의 연구역량, 비전, 리더십 등

*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성과마루 DB 내 성과소개서 39,228건



성과마루 DB 내 연구보고서 55,434건



KCI 이용자 1,452,149명



연구자의 노력과 연구재단의 지원이 만나 창출된 우수한 연구성과가 사회에서 충분히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한국연구재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연구성과가 확산되고 활용됨으로써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연구자들의 노력이 존중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의 확산

공공정보 공개

연구와 관련된 공공정보를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연구재단은 성과마루 서비스와 KC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과마루는 연구성과 정보를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로서 관련 부서와 기관의 협조를 강화하여 최신 연구성과의 활용성을 높입니다. 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는 재단의 등재학술지에 대한 인용정보를 공개합니다. 연구자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능을 개선하였고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수성과 발굴

우수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내·외부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우수성과 풀(Pool)의 다양화로 다양화로 선정된 우수성과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각 부처의 우수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하였습니다. 연구자와 발굴 기여자에게 포상하여 연구자에게는 우수 연구성과 창출 동기를 부여하고, 발굴 기여자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여 안정적 시스템 정착을 도모하였습니다.

수요자를 고려한 확산방법

연구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수요자에 맞춰 차별화된 효과적 확산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과전시관을 운영하여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확산을 강화하였습니다. 산학협력엑스포, 인문사회성과전시회와 같은 오프라인 사업부서가 주도하는 성과 홍보·확산 방법입니다. 성과를 전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분야 특성에 맞는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 간의 확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학·연 연구성과 교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성과 이어달리기

개발이 완료된 우수과제를 다른 정부부처가 이어받아 우수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천기술개발사업 성과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협력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주기초연구는 우주사업에 활용될 뿐 아니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화장품을 출시하여 국민의 삶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연구성과 이어달리기를 통한 R&D 투자 선순환 모델

기초원천투자	응용투자	국민체감 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학·연구소 논문, 특허 등 학술적 성과	산업통상자원부/대학·연구소·기업 사업화 등 산업적 성과	혁신적 소재 실용화 사회경제적효과

연구사업 성과의 국제화

글로벌 혁신센터(KIC)

글로벌 협력사업의 하나인 글로벌 혁신센터는 미국, 유럽, 중국과의 협업을 국가의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성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업신문, 매일경제 등 미디어를 통해 KIC 사업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글로벌 혁신센터

워싱턴	실리콘밸리	베를린	중국
바이오/의료	IT	기술사업화	IT, 문화콘텐츠
KIC StartMass Challenge(1회, 12팀) /I-Corps(Innovation Corps)(1회, 27팀)	KIC Express [Nesting(1회, 11팀), Soaring(2회, 17팀)]	Startup Autobahn (기술사업화) (3회, 33팀)	차이나夢(3회, 17팀), 차이나路(2회, 8팀), Demo Day(투자 설명회)(3회, 82팀)

공적개발원조(ODA) 성과의 확산

개도국의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하여 해당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ODA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국립간호대학과의 협력 사례는 주변 5개국으로 확산되었고, 에티오피아와 네팔에서는 협력국 내 타 대학으로 우수성과가 확산되었습니다. 컨퍼런스, 언론보도, 홍보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된 우수사례로 인해 ODA사업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 성공사례 확산

아시아협력사업의 연구비가 대부분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기에 성과 책자를 발간하여 연구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우수성과사례는 연구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관련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단계별 추진절차

선정과제	계속과제	종료과제
협약관리	우수과제 홍보	실적점검
과제 특성을 고려한 협약문구 추가	우수사례 전시 등을 통한 대외 확산	과제 특성 맞춤형 연차/중간 점검
		종료과제 대상 연계가능, 타사업 정보 제공

재단 40주년 기념 국제포럼 행사 전시

사업	연구책임자	주요내용
한-몽골 협력사업	노주원(KIST)	약용식물 산업화 추진
한-중 협력사업	임창환(원자력연)	고출력 레이저 및 X-선 영상기술 개발
한-중-일 협력사업	박종훈(숙명여대)	암 후성유전체 연구 기반 확립

ODA 사업예산 48.22억 (2016년 40.22억)



2017년, 연구자를 위한 새로워진 정보서비스



연구자 맞춤형 사업추천 서비스

연구자가 연구분야, 성별 등 개인별 조건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된 조건과 일치하는 맞춤형 사업을 추천합니다. 연구자에게 최적의 사업을 추천하여 연구자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e-Navi 모바일 서비스 확대

스마트폰을 통해 연구사업 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신규사업 전체로 적용이 확대되었고,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e-R&D와 그룹웨어를 연계하여 실시간 연구비 지급 내역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Cloud로 접속폭주 해결

국책사업 중 접수과제 수가 가장 많은 6월과 9월 과제 신청마감일에 재단 시스템과 외부 클라우드를 동시에 활용하여 시스템 지연을 해소합니다. 연구재단의 접수시스템과 외부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총 18개의 안정적인 접수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KRI, 브랜드 가치 제고

한국연구재단통합정보시스템(KRI)에서 연구자의 데이터를 단순 수집했던 것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품질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연구과제신청 연습

분주하게 이루어지는 연구과제 신청을 접수기간 이전에 연습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의접수를 통해 사업을 등록하면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올 때 자동으로 이메일을 통해 공고내용을 안내합니다.



e-R&D 플러스 시스템

노후한 e-R&D 시스템을 개선하여 불편사항과 속도저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의 편의를 위해 원클릭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기관담당자를 위해 통계·현황판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기능 및 데이터를 제거하여 화면 속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행사 생중계

각종 세미나, 설명회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여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내외 행사를 원하는 장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지원 트렌드 콘텐츠 제공

매달 새로운 콘텐츠로 국민과 연구자들의 접근성을 높인 웹진을 발행합니다. 연구분야/키워드 등 주제별로 연구실적을 분석하여 최신 연구지원 트렌드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공합니다. 또한 통계 조회, 다운로드 조건 저장 등 개별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인공지능(AI)기반 연구지원

40만 명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구 키워드, 연구과제 성과물, 연구비 사용실적 등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130만 건의 논문정보를 포함하는 통합 플랫폼을 설치하여 인공지능(AI) 중심의 연구지원 환경을 조성합니다. 인공지능은 평가위원 추천, 연구 트렌드의 상시 분석, 미래유망기술 예측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국가대표 연구지원 전문기관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합니다.

활용	국민, 연구자			
서비스	연구지원 행정혁신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서비스	연구자 편의성 제고 서비스	
	 빅데이터 플랫폼			
분석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DB 통합 및 연계			
재단 주요 DB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시스템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기초학문 자료센터
외부 DB	SCI	SCOPUS	특허 DB	



사회적 책임의 실현

FULFILLMENT OF SOCIAL RESPONSIBILITY

60 임직원 공감 형성

68 재단 재능을 활용한 사회적 기여

74 환경적 책임을 위한 노력

01

임직원 공감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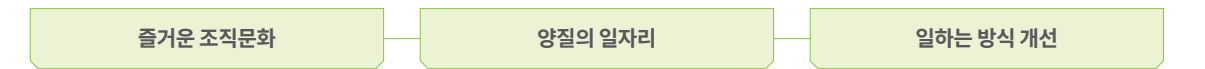
임직원 안전교육 2016년 141명 2017년 330명	2017 교육훈련예산 336,655천원	교육만족도 조사 2016년 3.9점 2017년 4.02점
---	---------------------------------	--

임직원 공감 형성의 중요성

한국연구재단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 임직원들이 재단의 사회적 책임에 공감해야 합니다. 연구재단은 우선적으로 임직원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채용, 교육, 문화, 업무과정은 임직원의 조직생활과 가정생활 모두를 배려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연구재단은 조직에 대한 임직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전략 및 이행

한국연구재단은 세가지 전략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역량교육, 합리적 인사관리,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일과 가정의 양립 노력, 안전한 일터 구축으로 임직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형평적 채용, 직무역량중심의 채용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업무간소화와 조직 내 소통 확대로 업무에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Q1.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A. 우리 재단은 재단 설립 이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와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프레쉬 휴가제’와 ‘연가 저축제’를 도입하여 장기 휴가 사용 기반을 마련하였고, 육아휴직의 확대와 육아휴직 중 급속인정 기간의 확대로 모성보호와 육아지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2. 즐거운 조직문화를 만드는 활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A. 즐거운 조직문화를 만드는 노력으로는 춘·추계 체육 행사와 워크숍, 조직활성화 교육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으며, 직원 화합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직거래 장터 및 바자회 등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팀워크-업 데이’와 동호회 지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명상마루’ 공간 설치와 정기 요가 강좌 등도 꼽을 수 있습니다.

Q3. 임직원 공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임직원의 공감을 자아내는 활동으로는 유연근무제가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인 만큼 여러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평균 50%가 넘는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별 직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가족 돌봄, 자기개발 등 필요에 따라 업무와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Q4. 임직원 공감을 위한 재단의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A. 최근 정부에서도 일·가정 양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이 제도의 취지에는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량, 또는 주변 눈치 때문에 실천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활용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관차원의 지속적인 독려와 필요에 따라 제도의 강제성 부여 등 일·가정 양립이 조직 문화로 정착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재경영팀은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일·가정 양립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및 신규제도 발굴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재경영팀
이지원 선임연구원

즐거운 조직문화

열린혁신 및 사회적 책임 교육



역량교육



교육훈련 체계 만족도
4.02점(5점만점)



1인당 교육시간
87.5시간
(2016년 79.5시간)



직원들의 즐거운 조직생활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 교육, 노사관계, 일·가정 양립문화, 안전성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가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덜어주고 직원의 안정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

역량 중심 교육

직무 역량 모델을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통역량과 리더십역량,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일반적인 교육부터 재단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까지 포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역량중심 교육 프로그램

구분	목적	교육과정
공통 역량	기본 역량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 교육, 폭력예방 교육 등 법정교육 • 조직 활성화를 위한 소양교육 • 고객 서비스마인드 및 전사 노무 교육 등
리더십 역량	직급별 역량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급에 따른 리더십 유형 분류(가치창출/목표지향/화합중심/성과중심/자기개발) 및 성장단계별 교육과정 - 고위관리자/중급관리자/여성관리자/신입 및 인턴 과정 등 • 여성인재아카데미 등 여성 특화교육 • 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외부 위탁교육 - 국립외교원, 성균관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직무 역량	직무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작성, OA, 학습조직 등 직무향상 공통교육 • R&D/경영관리 등 직무군별 전문 교육 • 정책동향 파악 및 업무경험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파견
글로벌 역량	다차원 경력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장기 연수 • 주재사무소 연수, 국제협력전문가 과정 등 신규 단기연수 프로그램 신설 • 어학 능력 향상 지원 등
특별 교육	조직 성장 동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경력자 생애설계 과정 • 성과 부진자 역량향상 과정

온라인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이러닝 플랫폼을 사용하여 교육의 접근성과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재단 맞춤형교육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1인당 평균 이수과정 수와 수강률이 증가했습니다.

합리적 인사관리

경력개발경로 기반 인사관리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이용하여 직무분석을 시행하고 표준직무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 그에 맞춰 '자형 경력개발 경로 기반 순환근무 인사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력 초기와 후기에 직무간 순환을 하고 중기에는 특정 직무군 내에서만 순환하며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노사관계

노사협약 체결식



노사관계 구축 노력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1사 3촌 일손돕기를 비롯한 4개 분야 사회공헌활동을 27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노사 공감과 소외계층 지원을 지원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의사소통

공식·비공식적 노사 소통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노사공동 TF, 실무추진단을 신설하였고 93회 이상 채널을 가동함으로써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였습니다.

노사 의사소통

구분	대상	주요내용 및 목적	2016	2017
노사대표 간담회	노동조합 위원장	• 주요 현안사항 공유 및 협력(비공식) • 근무환경 개선방안 논의·부서방문	18회 수시	22회 수시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 노사협력 참여를 통한 공동이익 증진	4회	4회
노사실무 협의회	노동조합 집행부	• 노사관계 계획 및 안건을 통한 실무협의 • 노사공동 상생협력프로그램 기획·운영	45회	46회
단체교섭	노동조합	•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	발생시	발생시
노사고충위원회	위원(사무국장)	• 노사 공동의 고충상담 및 처리 등	-	6회
노사공동 TF	TF참여 노조원	• 국정과제 조기 이행을 위한 협의 등	-	15회

노사선진화 전략

노사 선진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컨설팅으로 노사관계의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노무법인과 인재개발원의 컨설팅으로 체질 혁신, 갈등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로 노사의 책임, 관계, 역할 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직무역량기반
인사관리 만족도
3.86점(5점만점)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 수립 및 실천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성과 창출	소통과 참여의 노사관계 구현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단체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공동 선진화 전략 개발·보완 • 협력적 노사관계로 정부정책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터 혁신을 통한 갈등 사전예방 • 노사 상생·협력형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활성화 및 의견수렴 절차 마련 • 노사관계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선 • 정부지침 준수한 임금협약 체결

유연근무제 사용자
162명



일·가정 양립문화
직원 만족도
3.76점(5점 만점)



일·가정 양립제도

유연근무제

직원들의 필요에 맞춘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자가 직접 근무 시간을 지정하도록 개선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임신위험기 여성은 의무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복직예정자에게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안내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자에게는 유연근무제 사용을 더욱 권장합니다.

육아지원 강화

임신한 직원에게 전주기적 정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복귀로 이어지는 각각의 단계에서 산모와 아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육아지원 체계

<p>임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기(12주 내, 36주 후) 단축근로 허용 의무화 •임산부 연장근로신청 시스템 차단, 주차구역 운영 	<p>출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모두 출산휴가 보장(남5일, 여90일) - 2017년 출산 여성과 배우자 휴가사용률 100%
<p>육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ne-stop 패키지 도입·시행(2017년 3명, 100%) -임신기 단축근로-출산휴가-육아휴직 동시신청 •육아휴직 근속기간 인정범위 확대(1년→3년) •남성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확보, 우선배치(2명) 	<p>복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직 후 유연근무제 자율 활용으로 휴직자 직무 적응기 확보 -2017년 2명(육아휴직 후 복직률 100%) •직장 공동보육시설 활용 증가(10명→15명)

육아지원 제도 이용자 수

연도	2015	2016	2017
육아휴직자수	10	13	17
남성휴직자수	3	2	2
인접기관 공동 보육시설 이용자수	10	10	15

임직원 개인생활 지원

임직원의 개인생활, 가정생활, 조직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상생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비금전적 복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금전적 복지프로그램

<p>가족동반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동호회, 팀워크-업데이 등에 직원 가족 참여 독려 • 재단 체육시설 및 장소 직원 가족에게 개방 • 건강검진 가족 할인 	<p>건강·생활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성구 정신상담센터 • 점심시간 명상힐링센터 신설 • 리프레쉬 휴가제(휴일 포함 7일 이상) 사용 촉진 	<p>자기계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호회를 통한 직원 간 취미 활동 장려 • 유료교육과정, 학위과정(주당4시간근로시간인정) 적극 지원 • 퇴직예정자 대상 생애설계 교육 실시
---	---	--

연가사용률 86.7%
(2016년 75.1%)



1인당 휴가일수
평균 10.5일 →
12.3일(1.8일 증가)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자유로운 연가 사용 및 정시퇴근 문화를 확산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가 사유 작성을 폐지하였고 패밀리데이, 리프레쉬 휴가 등을 실시하여 제도적으로 연가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일은 정시퇴근하는 날로 지정하고, 업무간소화, 퇴근차량 조기운행 등으로 업무효율성과 몰입도를 높여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p>연가사용 활성화 기간 지정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검다리 공휴일이 포함된 기간은 전 직원 1일 이상 연가 활용 권장 • 비정규직에 대하여 연가 우선 사용 조치
<p>연가 사용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부서별 연가사용 현황 안내 및 연가 사용 독려(분기별) • 잔여연가 일수 사용계획 접수(연 2회) 및 연가사용일 지정 • 퇴직예정 비정규직 잔여연가 안내 및 전부소진 독려(상시)
<p>리프레쉬 휴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계휴가 기간, 명절 연휴 등 7일 내외 장기 휴가 독려(총 2회)
<p>패밀리데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금요일 '패밀리데이' 지정 • 조기퇴근 및 연가 사용 장려(연가사용 그룹웨어 홍보, 총 3회)
<p>연가사용률 목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가사용률을 부서장 평가 실적으로 반영하여 연가사용 목표 달성

고충상담실

직원들이 가정생활과 근무환경 때문에 겪는 고충을 연구재단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직원이 조직에 적응하면서 받는 부담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치사항으로 부서 전환배치, 대면상담 및 유선상담, 단계적 근무 시간 확대 등이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

재난관리 대응체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부서마다 비상상황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부여하여 재난 상황에서 담당부서의 주도로 재난을 진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상연락망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재난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시 상황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 체계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예방활동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구재단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안전대(大)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붕괴 또는 침수가 예상되는 시설을 관리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도 수시로 보수·보강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을 선정하여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필요시 보강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전문화 확산

직원과 국민의 안전·보건환경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빙기, 장마철, 휴가철, 산불위험 시기와 같은 취약시기에는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자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안전담당 직원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연구재단은 더 많은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채용과정을 개선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으로 재단과 구직자 모두가 만족하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연구재단에 맞는 정규직전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의 직접고용과 차별 없는 임금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에서 근무경력이 있거나 체험형 인턴을 경험한 지원자들에게 정규직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전략을 시행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형평적 채용

정규직 채용 시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별도분야로 지정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모두 의무고용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하였고, 비수도권 지역인재에게는 전형단계별 가점을 부여하여 면접 대상자의 40%를 차지하도록 할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시행하여 공공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회형평적 채용 현황

연도	구분	목표	실적
2017	국가유공자	14명(상시근로자의 4%)	16명 근무
	장애인	11명(상시근로자의 3.2%)	12명 근무
	지역인재	5명(신규 채용의 35%)	5명 신규채용
2016	국가유공자	13명(상시근로자의 4%)	15명 근무
	장애인	10명(상시근로자의 3.2%)	12명 근무
	지역인재	9명(신규 채용의 35%)	7명 신규채용

직무역량중심 채용

한국연구재단은 채용 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지원자의 직무역량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력, 어학점수와 같은 정량적인 평가와 인·적성검사를 폐지하고 지원분야별 전형위원회를 운영하여 직무중심의 채용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수집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험형 인턴 강화

한국연구재단은 다양한 직무를 이해하고 실무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인턴을 확대하였습니다. 2016년에 15명의 인턴을 고용하였고, 2017년에는 31명의 인턴을 고용하였습니다. 또한 체험형 인턴의 현장체험 과정을 신설하고, 주 1회였던 교육을 3회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청년들이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험형 청년인턴 교육



일하는 방식 개선

회계업무 내부직원 만족도 94.3점



업무를 혁신하고 내부 소통을 활성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단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편의까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내부 소통을 통해 임원과 직원들이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경영철학을 공유함으로써 연구재단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단내부 업무 혁신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여 업무 효율성과 직원 편의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보서비스개선협의회에 본부별 대표직원이 참석하여 개선사항을 제안합니다. 또한 회계업무에 종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절감과 업무생산성 제고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평가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보고서 제출 분량을 줄이고, ppt나 그림파일의 활용을 금지하였으며, 평가단계를 축소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체계 고도화

한국연구재단은 방대한 양의 연구 관련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교육, 홍보, 모의훈련 등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을 연중 시행하고, 5개 분야의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보안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체계

1. 시스템 보안	① 계정관리 및 접근통제시스템 구축
2. 전자정보보안	② 계정관리절차 정비·안내
	③ 업무시스템 로그인 취약성 조치
	④ 계정, 비밀번호 동일자 조치
	⑤ 원격접속 인증체계 개선방안 수립
	⑥ 재난·재해·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3. 개인정보 보호	⑦ 개인정보관리 TF 구성·운영
	⑧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⑨ 전담 인력 1명 확보
4. 보안정책	⑩ 5단계(기획·계약·수행·완료·감사) 관리절차 수립
5. 자산 및 인원보안	⑪ 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등 보안관리 절차 정비
	⑫ 노트북·스마트 폰 등 휴대용 단말기 보안관리 추진계획 수립

임직원 모의훈련 악성코드 감염 신고율 95%



직원 아이디어 공모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연 2회 업무 간소화 의견을 수합한 결과, 월·주간회의 간소화, 페이퍼리스 회의 활성화 등 총 85건의 의견이 발굴되었고 그 중에 77건은 조치를 완료했으며 미완료 8건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통채널 다양화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직원 상호 간 이해를 높이고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20회 이상 실시한 '직원과의 대화'에서 이사장과 직원들이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월간 회의, 실장·PM간담회, 전 직원 소통 토크콘서트 '허심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원과의 대화 만족도 95.6점



직원과의 대화



02

재단 재능을 활용한 사회적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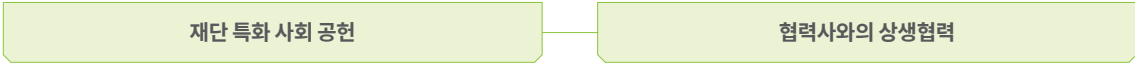
사랑의한구좌 기부 참여자 2016년 111명 2017년 155명	금요일에 과학터치, 석학인문강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명예의 전당	정부권장정책 구매실적평가 3년 평균 99점
---	--	-------------------------------

사회적 기여의 중요성

사회적 기여는 공공기관의 목적인 공공성 실현과 국민의 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연구인 만큼 한국연구재단이 보유한 연구 결과와 재능을 국민과 사회에 돌려드리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알기 쉬운 연구성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공정거래로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과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략 및 이행

한국연구재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회와 교류합니다. 우선 재단이 보유한 과학기술, 인문사회 지식을 대중과 나누는 재단 특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협력사와의 건강한 관계를 바탕으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Q1. 즐거운 이동과학교실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말씀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KAIST 수리과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박종호입니다. 저는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소백산 중학교와 영동군 상촌중학교를 방문하여 “컴퓨터와 수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계산수학”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으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려운 수학 내용보다는 교실 안에서 배운 수학교실 밖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영화, 의료, 게임 등)에 치중하였습니다. 강연 이후에는 학생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연과 관련된 질문 외에도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 중학생 시절은 어떻게 보냈는지, KAIST는 어떤지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답해주었습니다.

Q2. 즐거운 이동과학교실에 참여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A. 즐거운 이동과학교실은 멘토인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국가의 지원을 환원하는 방법을 고민하곤 했는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강연을 관심 깊게 들어주는 학생들을 보며, 수학자의 연구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격려를 얻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 중인 영상 복원 기법에 관한 설명을 할 때,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단 앞으로 뛰어 나와 좀 더 가까이서 복원된 영상을 보려고 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Q3. 즐거운 이동과학교실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된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범한 중·고등학생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과목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정 분야의 전문가이

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가까운 박사과정 사람들의 멘토링을 받아서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학문 이야기를 제하고서라도 형으로 누나로서 편하게 교류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큰 의미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Q4. 향후 즐거운 이동과학교실을 위한 개선점을 말씀해주세요.

A. 참여하였던 두 번의 즐거운 이동과학교실은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선을 위한 의견을 하나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들을 하나씩 방문하는 것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력을 해서, 군 단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콘서트 형식으로 즐거운 이동과학교실을 진행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본 행사가 널리 알려지는 데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공헌활동
 즐거운 이동과학교실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
 KAIST
 박종호 박사과정생

재단 특화 사회 공헌

금요일에 과학터치
26,822명 수강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30회, 52,754명 수강



한국연구재단의 미션인 '창의적 연구와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에 부합하는 특색과 내실이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재단이 보유한 학술적 재능을 대중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재단보유 재능 활용

금요일에 과학터치

국민에게 우수한 과학기술성과를 소개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과학기술을 친근히 느끼도록 금요일에 과학터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우수 연구자와의 만남을 통해 미래 과학자를 꿈꾸도록 6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교육청과 협업합니다.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일반 대중이 인문학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와 '인문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기를 맞이한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는 대중에게 인문학을 전파하고자 철학, 역사,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강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30회 이상의 강연이 개최되며, 순수 인문학 강연이지만 매회 500명 이상이 수강하는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인문주간은 학계와 사회가 인문학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대중들이 인문학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인 요구를 파악하여 인문학의 방향을 재정비합니다.



지역상생협력

1 for N 프로그램

기존의 1 for 1 프로그램은 1개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방식이었지만, 2017년 1사 3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3개의 농촌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온라인 상시거래를 하고 직거래 장터와 바자회를 각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1사 3촌 프로그램은 연구재단의 노사가 함께 농촌 활동 및 상생협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사 1하천 지킴이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하천정화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봉사
20회(2016년 6회)



나눔 문화 형성

사랑의 1구좌와 정기적인 헌혈에 참여함으로써 재단 내에 나눔의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사랑의 1구좌 기부는 작년보다 44명이 증가한 155명이 참여하였고 헌혈은 2회에 걸쳐 27명의 직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리, 목욕봉사 등 사회복지시설 봉사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지원

스포츠 R&D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과학기술인 측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내부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이 사업은 스포츠 경기력 향상 R&D과제를 기획한 것으로 국민 친화적 연구라는 점과 과학기술 발전 및 과학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적 올림픽 개최를 기원하며 재단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동과학교실

평창올림픽을 기념하여 평창중학교에서 이동과학교실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동과학교실은 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글로벌박사양성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6명의 KAIST 박사과정생들이 평창중학교 1학년 66명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과학강연과 진로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평창중학교 외 4개 학교에서도 18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동과학교실을 진행했습니다.

평창중학교



당진 송상중학교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명예의 전당



이동과학교실
만족도 93.1점
(2016년 91.2점)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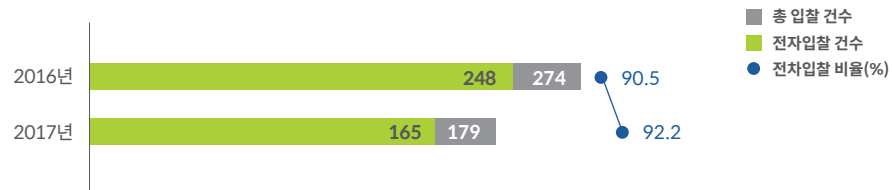
한국연구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 상생협력, 균등한 기회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자연스럽게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세심하게 개선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정착 노력

부패유발요인 사전제거

재단의 부패를 유발할 수도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재단의 임직원이 재취업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과정의 정보를 100% 공개하여 공정거래를 유도하였습니다. 발주계획과 입찰공고를 의무적으로 공지하고 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계약업무를 진행함으로써 부패가능성을 근절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전자입찰 활용 현황



직원 전문성 강화

구매와 계약에 관련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담당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청렴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매 및 계약 교육 프로그램

	전 직원 대상 계약 및 구매업무 교육 실시
직원 맞춤형 교육	신입직원 대상 구매·계약 교육(2회)
	직원 편의를 고려한 상시 1:1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실시
	물품용역계약업무 관련 교육(3.21.)
	시설공사계약업무 관련 교육(3.21.)
	구매실무교육 및 공공구매상담회(4.20.)
업무 전문성 강화	신기술인증 공공구매교육(4.26.)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통합설명회 참석(4.28.)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교육(9.6.)
	충청권 중소벤처기업박람회 상담회 참석(9.19.)

대금지급 기한(14일) 준수율 100%



계약업무 개선

공정거래와 균등한 기회를 위해 협력사 맞춤형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대금지급 기한과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여 상생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줄이고자 서류제출을 최소화하고 제안서는 전자매체를 통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업무 개선 내용

수요자 맞춤형 모든 계약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시스템 비로그인 상태에서 입찰 관련 정보 조회 가능 조달시스템 외 알리오를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일자, 금액 등의 선택정보 맞춤형 열람
사전공개를 통한 공개경쟁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억원 이상 발주는 사전공개(5일이상)를 통해 참여사 의견 접수 대표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
참여 기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세업체 등의 계약 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제출서류 간소화 및 우선 순위별 적격심사 시행(선 투찰·후 심사)
업체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매체를 활용한 제안서 제출로 입찰 경비(제본비) 절감 불필요한 입찰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방지
청렴수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시 조달 및 청렴 규정 안내, 신고제도 등 조달 관련 내용 입찰 후 계약업체 및 탈락업체 대상 만족도 조사

중소협력사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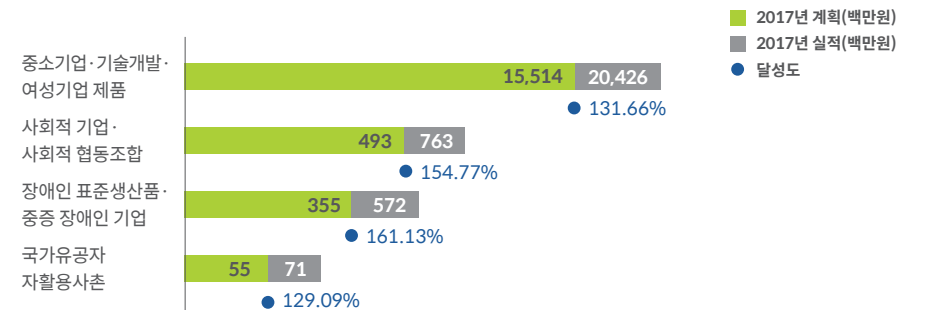
입찰조건 최소화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하였습니다. 입찰 공고 시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조건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을 정부 권장정책의 총액인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자 기업 배려

상생과 협력을 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기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물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단의 인쇄물은 여러 인쇄업체와 형평성 있게 거래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 매년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기업 제품, 국가유공자 제품 구매로 정부권장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약자 기업 제품 구매 현황



재단 외부청렴도 (구매·계약) 9.54점



정부권장정책 구매실적평가 3년 평균 99점



03

환경적 책임을 위한 노력

녹색(친환경) 제품 구매
 2016년 489백만원
 2017년 546백만원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환경적 책임 이행의 중요성

환경은 경제,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이루는 한 축입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연구 재단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재단 시설과 업무를 개선하여 친환경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략 및 이행

두 가지 방법으로 환경적 책임을 이행합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업무 체계를 구축하여 재단 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환경을 위한 연구

친환경 실천문화

인터뷰

Q1.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과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은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꾸어 가기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에 사업이 시작되어 충북 진천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2016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에너지타운 구축사업을 위해 우리 재단은 주관연구기관 선정, 연구비 관리, 연차별/단계별 실적 및 계획의 점검과 평가 등을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Q2.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이 환경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은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 등 사회적으로 기피되는 시설의 부지를 활용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환경개선과 에너지 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되는 잉여 에너지의 판매 등을 통하여 수익모델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대응과 관련하여 2016년 11월에 발효된 파리 기후 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강화되는 시대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효과적인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충북 진천에 준공된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통해 연간 약 3.2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30년산 소나무 11만 그루에 대응하는 연간 약 720톤 이상의 CO₂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Q3.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충북 진천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국내 최초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융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실증연구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태양열, 연료전지, 지열, 하수폐열을 이용한 열에너지 생산을 위한 기술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계절변화 특성과 연계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남는 열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겨울철에 공급하는 계간축열식 열공급 기술을 국내 최초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에너지 마을이 여러 지역에서 많이 구축될 수 있도록, 남은 사업 기간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열 및 전기 생산과 공급 등의 실증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사업 담당부서장 한국연구재단 원천연구팀 이공재 팀장

환경을 위한 연구

CO₂톤당
포집에너지 투입량
220KWH/tCO₂ 달성



과학기술연구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녹조와 같은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체에너지 연구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파리기후협정에 발맞추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기술분야에서 세계 선도적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 에너지를 포함한 10대 기후기술을 분류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기술 사업의 성과로 CO₂톤당 포집에너지 투입량 220KWH/tCO₂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산·학·연 및 지자체 협업을 통해 기후산업육성모델 발굴과 신산업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기후산업육성 모델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1,541만톤CO₂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밀접이슈 해결 연구

초미세먼지 관리,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 공급 체계 구축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환경 문제에 대하여 과학기술을 활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 웹페이지 운영과 사회이슈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용자인 국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청,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원자력연구 패러다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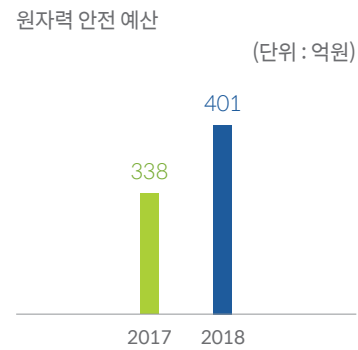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같이 원전 관련 정책이 재검토되고,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탈원전이 포함됨에 따라 ‘미래원자력 R&D추진계획’과 ‘미래원자력 혁신성장전략’을 수립하고 2018년도 원자력 안전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존의 ‘경제성장지원’ 중심에서 ‘국민 생명·안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원자력 연구 추진 계획 및 전략

미래원자력R&D 추진계획	미래원자력 혁신성장전략 수립
① 원전의 안전 및 해체기술 확보 ② 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 요소기술 ③ 우주·해양기술 등과의 혁신융합기술 ④ 국가정책 및 사회문제해결 지원 등	① 테러, 지진 등 극한환경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 ② 핵심설비 원격절단, 원전 제염 ③ 안전, 해체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④ 사용 후 핵연료 운송대비 특수용기개발 ⑤ Si기반 자율운전, 빅데이터 고장감시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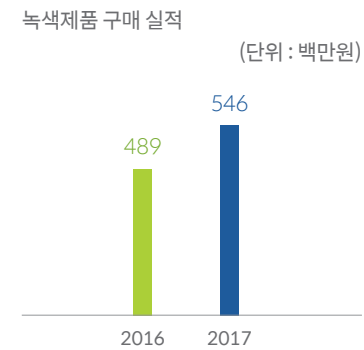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간의 융복합을 통해 일정규모의 타운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간 융복합기술을 사용하여 친환경에너지 타운의 성공모델을 수립하고 관련기술을 이전함으로써 국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 국외수출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6년 11월 준공된 충북 진천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은 2017년도에 성공적으로 가동되었고, 봄부터 가을까지 남는 열에너지를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겨울철에 활용하도록 하는 계간 축열식 블록히팅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 문화

한국연구재단은 내부적으로도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재단 시설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고, 녹색제품의 구매와 종이사용의 절감으로 일상적인 업무에서 환경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한국연구재단은 2017년 구매하는 모든 물품의 94% 이상을 녹색제품으로 구매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녹색제품은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환경에 주는 부담을 줄이는 제품입니다. 환경친화적인 구입으로 환경 보호를 지지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구분	2015	2016	2017
녹색제품구매액(천원)	589,532	488,980	545,641
총구매액(천원)	658,034	571,809	552,841
녹색제품구매비율(%)	89.59	85.51	98.70

페이퍼리스 실천

회계업무를 전산화하여 종이 서류의 사용을 줄였습니다. 자원의 절약, 업무생산성의 증진과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회계업무에 대한 내부직원의 만족도도 향상되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린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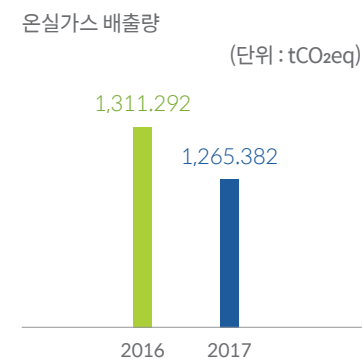
보수가 필요한 대전청사 본관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가 낭비되던 기존의 건축물을 에너지 성능을 높인 녹색 건물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60개 기관이 신청하였고 그중 17개의 기관이 선정되어 안전환경 조사를 거쳐 최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절약 노력

한국연구재단은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용 차량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료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하고 실내온도 조절, 조명 소등 등의 활동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에너지 사용량

대상시설명	연료	단위	2016	2017
교육연구시설	도시가스(LNG)	m ³	132,098	116,603
교육연구시설	전력	kWh	2,021,674	2,014,241
업무용차량(휘발유)	휘발유	ℓ	8,871	9,663
업무용차량(LPG)	LPG	ℓ	12,629	8,706
업무용차량(경유)	가스/디젤 오일	ℓ	11,297	10,292



APPENDIX

80 GRI Standards Content Index

82 사회적 가치 검증의견서

84 제 3자 검증의견서

86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지지

GRI Standards Content Index

주제(Topic)	공개명(Disclosure)	ISO 26000	페이지	검증여부		
공통주제(Universal Standards)						
GRI 102: 일반보고 (General Disclosure)						
조직 프로필	102-1	조직명	6.3.10/6.4.1-	8	V	
	102-2	활동 및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6.4.2/6.4.3/6.4.4/	9-11	V	
	102-3	본사 위치	6.4.5/6.8.5/7.8	2,8	V	
	102-5	조직 소유 및 법적 형태		8	V	
	102-6	시장 영역		10,11	V	
	102-7	조직 규모		8	V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8	V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요한 변화		12,13,18,19	V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7,86	V	
	102-13	가입협회		7	V	
	전략	102-14	최고의사결정권자 성명	4.7/6.2/7.4.2	4,5	V
		102-15	주요 영향, 위기 및 기회		12,13	V
	윤리 및 청렴성	102-1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및 행동규범	4.4/6.6.3	20-23	V
102-17		윤리에 대한 자문 및 고충처리 제도		20-23	V	
거버넌스	102-18	거버넌스 구조	6.2/7.4.3/7.7.5	18,19	V	
	102-20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임원진 책임		18,19	V	
	102-21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		24,25	V	
	102-22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위원회 구성		18,19	V	
	102-23	최고의사결정기구 의장		18,19	V	
	102-24	최고의사결정기구 임명 및 선정		18,19	V	
	102-26	목적, 가치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18,19	V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5.3	24,25	V
102-41		단체협약		25	V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24	V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24,25	V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25	V	
102-46		보고내용 및 주제경계 정의		24,25	V	
102-47		중대 주제 목록 (List of material topics)		24,25	V	
102-50		보고 기간	7.5.3/7.6.2	2	V	
102-51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2	V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2	V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2	V	
102-55		GRI Content Index		80-82	V	
102-56		외부 검증		84,85	V	
특정주제(Topic-specific Standards)						
GRI 200: 경제						
간접경제효과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29,39,49,69	V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간접 경제효과	203-1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	6.3.9/6.8.1-6.8.2/6.8.7/6.8.9	33,43,45,55	V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효과	6.3.9/6.6.6/6.6.7/6.7.8/6.8.1-6.8.2/6.8.5/6.8.7/6.8.9	46,72,73,76,77	V	
조달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69,75	V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조달	204-1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지출 비율	6.4.3/6.6.6/6.8.1-6.8.2/6.8.7	73,77	V	

주제(Topic)	공개명(Disclosure)	ISO 26000	페이지	검증여부	
반부패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20	V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반부패	205-1	사업장의 부패 위험 평가	6.6.1-6.6.2/6.6.3	20	V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6.6.1-6.6.2/6.6.3	20-23	V
GRI 300: 환경					
에너지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75	V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에너지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6.5.4	77	V
배출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75	V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 (Scope 1)	6.5.5	77	V
GRI 400: 사회					
고용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61	V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고용	401-1	신규 채용 및 이직자 수 및 비율	6.4.3	66	V
	401-3	육아휴직	6.4.4	64	V
훈련 및 교육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61	V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훈련 및 교육	404-1	한 해 동안 근로자 1인이 받는 평균 훈련시간	6.4.7	62	V
	404-2	근로자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6.4.7/6.8.5		
다양성과 기회균등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다양성과 기회균등	405-1	거버넌스 조직 및 임직원 내 다양성	6.2.3/6.3.7/6.3.10/6.4.3	66	V
인권평가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23	V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인권평가	412-2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임직원 교육		23	V
지역사회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69	V
	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 참여활동, 영향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	6.3.9/6.5.1-6.5.2/6.5.3/6.8	70,71	V

사회적 가치 지표 측정 제3자 검증의견서

한국연구재단 이해관계자 귀중

더씨에스알(THE CSR, 이하 '검증인')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사회적 가치 지표 측정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더씨에스알 검증팀은 사회적 가치 지표 측정 프로세스와 성과 전반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한국연구재단의 경영진에게 제공합니다.

검증기준

검증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2017년 사회적 가치 지표((Social Value Index) 활용 매뉴얼'에 근거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사회적가치 추진 활동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조직 미션, 사업 활동, 조직 운영 등에서의 사회적 가치 평가
-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노동성과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
- 기업활동에서의 혁신성 평가

검증수준

검증은 사회적 가치 지표 활용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데이터 샘플링과 현장 인터뷰는 제한적(Limited Level)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검증인이 수행한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적 가치 지표 측정결과 보고서와 증빙자료에 대한 문서검토
- 사회적 가치 활동에 검증을 위한 담당자 인터뷰
- 검토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제시 및 수정보완 확인

검증한계 및 독립성

검증인은 제한적 범위의 인터뷰와 서면검토를 통해 보고서의 신뢰수준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100%의 정확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검증인은 제3자 독립검증기관으로서 윤리성과 독립적 지위가 확보된 가운데 검증의견을 제시합니다.

검증의견

검증인은 보고서에 수록된 한국연구재단의 사회적 가치 추진활동에 대한 검증활동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오류나 편견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 사회적 가치 지표 측정 결과는 2016년 대비 8점 향상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성과 평가체계 구축에 기인합니다.

전체평가 등급

구분 점수(등급)	2016 82.6점(우수)	2017 90.6점(탁월)
--------------	-------------------	-------------------

사회적 가치 지표별 평가점수

영역	측정치표	배점	2016	2017
사회적 미션의 관리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5	1	5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	5	1	5
주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0	8.4	8.4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노력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 수준	5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5	5
이윤의 사회목적 재투자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10	6.2	6.2
운영의 민주성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5	5
근로자 지향성	근로자 임금수준	10	10	10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5	5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고용성과	10	10	10
	매출성과	10	10	10
	영업성과	5	1	1
노동성과	노동생산성	5	5	5
기업 활동에서의 혁신성	기업 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10	10	10
합계	14개 지표	100	82.6	90.6

경영개선권고

한국연구재단이 사회책임경영을 도입하고 중장기 경영목표와 전략과제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경영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평가 도입과 제 3자 검증을 통한 데이터 신뢰도 확보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후, 재단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연구비 집행 등 재단 고유의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과 달성 목표를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유의 평가모델로써 그 성과를 꾸준히 관리해 나가고 문화 내재화를 위한 전 임직원 대상 교육과 인식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노력을 이어나가기를 권고합니다.

2018년 03월
더씨에스알 대표이사
정세우



제3자 검증의견서

한국연구재단이해관계자귀중

더씨에스알(THE CSR, 이하‘검증인’)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017 한국연구재단 사회책임경영보고서’(이하‘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더씨에스알 검증위원회는 보고서 발간 프로세스와 수록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결과를 한국연구재단의 경영진에게 제공합니다.

검증위원회 구성

검증인은 보고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독립적인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검증위원회로 참여한 검증위원은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프로세스, 보고내용 및 성과 측면에서 심층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증기준

검증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A1000AS(2008) 표준과 GRI Standards의 보고원칙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AA1000AS(2008)의 이해관계자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의 원칙 적용 여부
- GRI Standards의 보고내용과 품질결정에 대한 원칙 충족 여부
- GRI Standards 핵심적 부합방식(Core Option) 충족 여부

검증수준

검증은 AA1000AS(2008)의 원칙 적용을 중심으로 일반수준 검증(Moderate Assurance Level)을 실시하고 데이터 샘플링과 현장 인터뷰는 제한적(Limited Level)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검증위원회가 수행한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고이슈 선정을 위한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의 합리성 점검
- 담당부서 인터뷰를 통한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점검
- 한국연구재단의 공공기관 경영실적보고서 합치 여부 확인

검증한계

검증인은 제한적 범위의 인터뷰와 서면검토를 통해 보고서의 신뢰수준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100%의 정확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검증독립성

검증인은 제3자 독립검증기관으로서 윤리성과 독립적 지위가 확보된 가운데 검증의견을 제시합니다.

검증의견

검증인은 AA1000AS(2008) 검증기준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고 가이드라인의 원칙 준수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검증의견을 제출합니다.

GRI Standards 핵심적 부합방식 충족 여부

검증인은 보고서 발간 국제가이드라인 GRI Standards 핵심적 부합방식 충족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공통주제 및 특정주제 10개에 대한 지표보고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절차를 통해 확인된 주요 보고측면과 세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주	주제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경제성과_203-1, 203-2 • 반부패_205-1, 205-2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302-1 • 배출_305-1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_401-1, 401-2, 401-3 • 다양성과 기회 균등_405-1 • 지역사회_413-1 • 훈련 및 교육_404-1, 404_2, 404_3 • 인권평가_412-2

AA1000AS(2008) 원칙 적용 여부

검증인은 보고서가 AA1000검증표준의 3대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포괄성의 원칙	한국연구재단은 이해관계자 참여활동을 추진해 왔는가?	검증인은 한국연구재단 이해관계자 선정 프로세스를 확인하였으며, 각 부서별 실시되어온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요성의 원칙	한국연구재단은 이해관계자에 중요한 이슈를 보고하는가?	검증인은 한국연구재단의 보고이슈 도출 절차를 확인하였으며, 중대성 평가 절차 검토 결과 적용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의 원칙	한국연구재단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사항에 적절히 대응하는가?	검증인은 한국연구재단이 이해관계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주요이슈들이 보고서에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영개선권고

한국연구재단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사회책임경영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높게 평가하며 향후 발전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제언합니다.

- 맞춤형 소통채널의 확충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별 니즈에 대한 분석과 이들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 보고서의 완성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정보와 이슈선정, 데이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 데이터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직원, 환경적 책임, 일자리 등 연구재단 내부 데이터의 정량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최고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혁신경영 마인드로 조직 내 사회책임 경영기반을 확충할 것을 권고합니다.

검증기관의 적격성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검증을 의뢰 받은 더씨에스알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전문기관으로 영국 어카운터빌리티사의 공식인증을 받은 AA1000AS(2008) 검증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의 Gold Community Member 지위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CSR 연구성과를 보유한 다국적 CSR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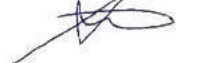
2018년 03월
더씨에스알 검증위원회



검증위원장
세종교육원 박종선 원장



검증위원
성신여자대학교 김경신 교수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 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전 세계의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된 SDGs는 사회적 포용, 경제 성장, 지속가능한 환경의 3대 분야를 아우르며 ‘인간 중심’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재단의 경영활동과 연구지원을 통해 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p>1 NO POVERTY</p>	<p>빈곤종식 70p: 재단 특화 사회 공헌</p>	<p>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p>	<p>산업혁신과 인프라 44p: 산업과 지역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 48p: 공공가치를 높이는 연구 인프라</p>
<p>3 GOOD HEALTH AND WELL-BEING</p>	<p>건강과 복지 32p: 건강문제 해결 연구 64p: 일·가정 양립제도</p>	<p>10 REDUCED INEQUALITIES</p>	<p>불평등해소 40p: 포용적 연구 지원 66p: 양질의 일자리</p>
<p>4 QUALITY EDUCATION</p>	<p>양질의 교육 44p: 산업과 지역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 62p: 직원 교육 70p: 재단 특화 사회 공헌</p>	<p>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p>	<p>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72p: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77p: 친환경 실천 문화</p>
<p>5 GENDER EQUALITY</p>	<p>성평등 40p: 여성과학기술인 지원</p>	<p>13 CLIMATE ACTION</p>	<p>기후변화 대응 74p: 환경적 책임을 위한 노력</p>
<p>7 AFFORDABLE AND CLEAN ENERGY</p>	<p>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76p: 환경을 위한 연구</p>	<p>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p>	<p>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20p: 윤리·인권경영</p>
<p>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p>	<p>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16p: 좋은 일자리 창출 46p: R&D 일자리 창출 66p: 양질의 일자리</p>	<p>17 PARTNERSHIPS FOR THE GOALS</p>	<p>글로벌 파트너십 7p: UN Global Compact 42p: 글로벌 역량 강화</p>



발행인 | 조무제
발행처 | 한국연구재단
발행일 | 2018.03

대전청사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Tel. 1544-6118 Fax. 042-869-6777

서울청사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25
Tel. 02-3460-5500 Fax. 02-3460-5519